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 대한항공 합병 난기류, 전방위 로비

### 백악관·법무부·상무부 등 에어프레미아엔 화물기 제한

대한항공이 3년간 진행해온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화물 사업이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미국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어프레미아에는 화물기 제공까지 포함해 항공화물 사업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오픈시크릿츠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개 업체 4명의 로비스트를 통해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상반기 12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공개된 로비 내용은 국제 항공 경쟁, 공급망 보안에 관한 것이며 로비 대상은 합병 심사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해 상무부, 국무부, 백악관 등이었다.

지난 8월 30일 다운받은 상원 공공기록보관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밝힌 오픈시크릿츠는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해는 1월부터 12월 사이 지출된 로

비액수라고 명시했다.

현재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대한항공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화물사업을 포함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와 미국이 운송비 상승 등 항공 화물 경쟁 제한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며 대체 항공화물업체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에 화물기 대여를 조건으로 화물사업 진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잉 747 화물기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 부문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며 화물기 운항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웹사이트에는 현재 화물기로 보잉 747-400 4대, 747-8F 7대, 보잉 777F 12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잉 747-400은 기령이 20년에 육박하는 노후기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제안에 대해 미주, 유럽노선에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대를 투입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운

항 및 정비 효율성을 감안해 보유 항공기를 통일하는 자사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주지역 화물 노선 점유율이 대한항공 50.2%, 아시아나항공 23.2%로 합병될 경우 점유율이 3분의 2에 육박하게 된다.

유럽 화물 노선 역시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이 40.6%, 아시아나항공 19.0%로 양사 점유율이 59.6%에 달한다.

박낙희 기자

## 10명 중 7명 “소셜연금 조기 수령”

### 시니어 설문 응답자 72% 2033년 수령액 감소 예측

#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김선호(62) 씨는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했다. 정년에 받는 소셜연금보다 20% 적은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하지만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선(63) 씨는 소셜연금 조기 신청을 알아봤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받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세금 문제도 있어 포기했다.

최근 소셜연금을 정년보다 일찍 신청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연금 최대 수령 연령인 70세 이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 기업인 슈로더가 실시한 2023년 퇴직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72%)이 소셜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를 원했다.



62~65세 사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로 나타났다. 70세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최근 연방예산위원회(CRFB)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은퇴연금 수령액이 평균 23% 줄어든다는 예측이 발표된 영향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44%가 소셜연금 고갈 우려로 조기 수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령을 넘어 70세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혜택이 매년 8%나 증가한다”며 “부부 경우 70세까지 연기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연금으로 남은 배우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서 연금 지급액 감소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또 메디케어는 65세부터 제공되는데 만약 65세 이전 조기 은퇴를 하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을 때까지 오바마 케어 등 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추가된다.

소셜연금 조기 신청에 대한 단점이 많지만 65세 때 생활보조금(웰페어-SSD)을 신청할 수 있다면 정년보다 일찍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 가계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영 기자

## 북한, 러시아에 대포 이전 시작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매체가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일 미국 CBS는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압수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무기) 장기 공급의 시작인지, 혹은 북한이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는 명확치 않다”고 했다. 이번 무기 이전은 지난달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풀이된다.

김홍범 기자

▶ 2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한글 탄생 580년,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첫 동시 복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글자의 원리, 사용법 등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인 『해례본』과 이를 한글로 옮긴 『언해본』이 최초로 동시에 복간됐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관계자가 『해례본』(간송본)과 『언해본』(왼쪽)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시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매입  
보석 새금,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 이혼·파산

**가정법 Family Law**

- 이혼 / 양육 / 입양  
Divorce Custody Adoption
- 합의이혼서  
Separation Agreement
- 법정대리인  
Guardianship
- 유언장 Wills
- 교통사고 Auto Accident
- 음주운전 DWI/DUI

**파산 Bankruptcy**

- 개인/비즈니스 파산(회생)  
Chapter 7&13 Chapter 11
- 채무조정협상  
Debt Negotiation
- 주택차압방지  
Foreclosure Defense
- 비즈니스 거래 Business Transaction
- 형사변호 Criminal Defense

www.songlaw.org

# 송영수

## 변호사

법정 공인 중재관 (Mediator)

Young S. Song  
Licensed in MD / VA / DC

고객들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켜 드립니다.

**Virginia Office**  
703-354-1033  
10301 Democracy Lane, Ste. 105  
Fairfax, VA 22030

**Maryland Office (Main)**  
410-696-2256  
3201 Rogers Avenue, Suite 301  
Ellicott City, MD 21043  
E-mail: YSSonglaw@cs.com

온라인 Zoom 상담 가능!

법정공인중재관 (Mediator)

첫 상담 무료 (30분)

- 이혼 상담 제외: MD Office에 한함
- 저녁 및 주말 예약 가능

For bankruptcy clients: "We are a debt relief agency. We help people file for bankruptcy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 물가 3.7% 상승, 5개월 만에 최대폭

(9월)

### 9월에 유가·농산물값 급등 영향 한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 커져

하락하나 싶던 물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고물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뒷다리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운신 폭도 좁아졌다.

5일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수는 112.99(2020년=10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이 겹쳐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물가는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었다.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5%를 웃돌았다. 외환위기가 닥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됐던 1998년 이후 최장기 고물가 추세를 이어갔다. 1월 이후 둔화하다 6월 2.7%를 기록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 2%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8월(3.4%) 다시 3%대로 올라선 뒤 재차 반등했다.

가장 큰 배경은 국제유가 급등이다. 9월에 전년 대비 석유류값 하락 폭이 4.9%에 그쳤다. 하락 폭이 컸던 7월(-25.9%), 8월(-11.0%)보다 하락세가 둔화하며 역으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기



5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저효과 영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향후 물가 흐름 역시 국제유가 동향에 달려 있다.

농축수산물도 3.7% 오르며 전월(2.7%)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특히 사과(54.8%), 복숭아(40.4%), 굴(40.2%) 같은 신선 과실(24.4%) 물가가 많이 뛰었다. 전체 농산물은 7.2% 올라 지난해 10월(7.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전기가스·수도(19.1%), 가공식품(5.8%), 외식(4.9%) 물가가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4%로 전월(3.9%)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

가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3.8% 올라 전달(3.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한 가운데 근원물가가 3%대를 유지했다"며 "계절 요인이 완화하는 10월부터 물가가 다시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이달부터 꺾여 연말께 3% 내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석 연휴 직후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추세다. 흰유유와 유제품 가격은 지난 1일부터 3~13% 올랐다. 우유 값이 오르면 빵·과자·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연쇄적으로 자극한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등 맥주 출고가 평균 6.9% 인상했다. 7일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국내 휘발유 값은 12주 연속 올라 1당 평균 1800원에 육박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유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고물가가 지속할수록 올해 2월부터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은에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진다. 한은은 오는 19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세종=김기환·이우림 기자

# 탄핵 위기 중 지소미아, 제정신이나 싶었을 것

### '박근혜 회고록' 세 번째 이야기

### 한국의 이익, 오바마의 요청 등 더중앙플러스에 비화·심경 공개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은 정작 다른 이슈로 가득 차 있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문제였다.

국방부가 한·일 지소미아 추진을 발표한 것은 2016년 10월 27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군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식의 비난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사태'까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풍전 등화의 신세가 됐다.

국회에서 탄핵 시켰바늘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시로 외교부 보고를 받으며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의 진행 과정을 체크했다. 박 전 대통령 자신도 "가뜩이나 코너에 몰려 있는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니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 박 전 대통령은 왜 위기 속에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까 뻔한 한·일 지소미아를 추진한 것일까.

'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은 6일 '한·일 지소미아 협정 체결' 전말을 전격 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청와대에서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요미우리 캡처]

개했다. 탄핵 위기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수차례 요청 등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한·일 지소미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어렵게 성사시킨 지소미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 위기에 처했을 때의 심경, 지소미아로 한·일 양국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복원하기로 일본과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일본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이 5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 회고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일본 언론에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유성운 기자

## WSJ "미 국제금리 상승·증시 조정·강달러, 경제 연착륙 위협"

미국 국제 금리가 고공비행하면서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경제활동에도 부담이 되면서다.

4일 블룸버그·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10년 만기 국제 금리는 4.735%, 30년 만기 국제 금리는 4.863%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최근 16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던 금리를 그나마 끌어내린 건 이날 고용통계업체 ADP가 발표한 9월 민간 부문 고용 지표다.

9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8만9000건 증가했는데, 이는 8월 수치(18만 건)와 예상치(15만3000건)를 크게 하회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과열된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전망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자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지표로 보고 반응한 것이다.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다.

'금리 공포'가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큰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해리스 파이낸셜그룹의 매니징파트너인 제이미 록스는 "시장은

금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분석가도 "증시의 큰 추세는 하락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 국제금리 상승, 증시 조정, 강달러 국면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5.11달러(5.6%) 하락한 배럴당 85.81달러에 거래됐다.

오호정 기자

### ▶ 1면 '북한'에서 이어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러시아 채널 1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물론 제약(우연 대북제재)이 있고, 러시아는 이 제약들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생각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도 두발언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양국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난 4일 해상에서 압수해 보관한 100만 발 이상의 7.62mm 이란 탄약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워싱턴 날씨 (°F)**

7일(토) 67~45	10일(화) 67~44
8일(일) 62~43	11일(수) 69~48
9일(월) 64~46	12일(목) 72~53

10월 6일(금) 79~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b>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b>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b>헤이마켓 콘도</b>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새 부엌, 유닛 포함 End Unit!!! Under Contract	<b>그레이트폴스 싱글홈</b>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일! SOLD
--	--	---

- Since 1996 -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의료비 나눔 사역

##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고린도후서 8:14 -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253 Broad Avenue, 2FL., Palisades Park, NJ 07650  
동부 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염려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 미국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 구입 “택도 없어”

### 워싱턴 지역 평균 소득 28%로 구입가능 리스팅 주택 거의 없어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주택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사가 지난 3분기 미국내 575개 카운티의 주택 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물의 99%가 일반 근로자가 구 평균 연간 소득인 7만1214달러로 구매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아톰 측은 모기지, 주택보험, 재산세 등 종합적인 주택 구매비용이 소득의 28%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미달하는 인구조로 간주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주택 바이어들이 주택구입에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리스팅 주택 공급 탓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를 웃돌면서 2년전과 비교해 매월 수백 달러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이 집계한 이자율을 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달 28일 기준 7.31%다. 올해 초 약 6.48%였던 것과 비교해도 83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소유주들은 재융자 등을 통해 2-3%대의 비교적 좋은 이자율에 묶여 있는데 반해,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리스팅 주택이 크게 제한돼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고, 매물 품



귀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택 구입 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선임연구원은 “현재 주택 시장에 그나마 공급되는 매물은 결혼, 출산, 이직 등의 이유로 내놓은 것”이라며 “공급이 급감하면서 부족한 매물 탓에 주택 매입 경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중간가격은

40만71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 및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들에게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저축액이 충분한 기존 주택 구매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충할 여유 자금이 있지만, 처음 주택을 구매하거나 젊은 층은 특히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건설 스타트업 뉴홈메이트의 덴 나코브스키 공동 창립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빠듯한 첫 주택구매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 독성물질 방류

### 웹코, 5700만달러 합의

전력회사 웹코가 수십년 동안 독성화학물질을 애나코스티아강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인정하고 워싱턴DC 정부와 57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워싱턴DC 검찰청에 따르면 웹코는 부자드 포인트와 베닝 로드 발전시설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독성화학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벌금 1천만달러, 애나코스티아정화 비용 4700만달러 등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자드 포인트와 베닝 로드 발전시설의 오염도 정화해야 한다.

브라이언 스와브 검찰총장은 “웹코가 합의금을 가입가구의 요금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VA 지역 ‘건강 검진의 날’ 성료

### 110여명 500여건 의료서비스 제공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가 성정 바오로 성당(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의 후원으로 지난 30일 진행된 제 39회 버지니아 건강 검진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건강검진 행사는 팬데믹 이후, 재개된 대규모 대면 행사로 총 110여명의 지역사회 주민에게 약 500건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행사는 총 7개의 의료 기관과 총 10명

의 자원 봉사 의사, 21명의 자원봉사자 등 총 90여 명의 협업으로 건강 보험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거나 언어 장벽으로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상담과 무료 진료의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진료를 받은 한 참가자는 “ 그동안 건강 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한 곳에서 독감 백신과 혈액검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건강검진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진료 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 주민들을 위한 건강 검진의 날은 오는 28일(토) 실버스프링 소재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제3보병사단 기념탑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정전 협정 70주년 기념 헌화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와 미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가 지난 5일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 했다.

행사는 한국전쟁 정전 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제3보병사단 협회 및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실 주최로 열린 제 7차 한국 전쟁 역사세미나의 일환이다. 김인철 회장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를 미 재향군인회와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오는 9일(월) 볼티모어항에 입항하는 해군 순항훈련함대 환영식에 참석해 햄버거 3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미재향군인회 측은 미동부지회 측에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703-403-7080 김인철 회장

김윤미 기자



“자원의 경이로움 만끽했어요” 메릴랜드상륙희가을 여행  
메릴랜드상륙희(회장 이광운) 소속 29명의 회원들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 유타 및 아리조나 주를 탐방하는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유타주의 캐년랜드, 아치스, 브라이스캐년 및 캐피털 리프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엘레로프캐년, 글렌캐년 댐과 아리조나 주 명소인 모뉴먼트밸리를 둘러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장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한국의 스킨보톡스, 메릴랜드 MI-IN에서 최초로 만나세요!

\*특별한 날! 아내와 어머니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남편 또는 자녀가 Pay시 10% 할인)



- ✓ 서울대 출신 Board Certified NP 직접 시술
- ✓ 피부층에 얇게 주사해 근육마비 NO
- ✓ 복합단백질 Zero, 내성 걱정 Zero
- ✓ 물광 효과, 피부 리프팅, 주름 개선

예약하러 가기

안전하고 빠른 제오민  
**Xeomin Botox**

\*제오민 보톡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프리마인 보톡스로서, 불필요한 복합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내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반복 시술에 효과적입니다.



**MI-IN BEAUTY** 2000A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301) 279-6960



# “왜 공소시효 지난 일 들추나”

### 존이 “내년선거 흔들려고 조사”

재선을 준비 중인 존이 시의원(12지구)의 정치 생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를 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한 LA시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는 5명의 위원과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원 3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감시할 위원직에는 시장, 검사장, 시의장과 부의장, 회계감사관 등 선출직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시의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된다. 현재는 에릭 가세티 전 시장과 마이크 퓨어 전 검사장이 임명한 인물 2명(제프리 다르 위원장, 만주사 컬크르니 부위원장)만이 남아있다.

윤리위는 2019년 존이 시의원이 보궐선거에 나서기 전에 있었던 2016년과 2017년의 혐의에 대해 올해 6월 갑자기 개인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8월 서류 작업을 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다. 윤리위의 주장대로 연방 수사국(FBI)의 조사는 실제 없었으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수사처 윤리위에 소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은 이미 처음부터 짜 맞춰진 혐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사건 내용을 공소시효(4년)를 무시하고 제기한 것은 단 하나 ‘내년의 선거’에 영



미치 잉글랜드(왼쪽) 전 시의원이 2019년 8월 실시된 LA 시의회 12지구 결선투표에서 승리가 확정된 존이 의원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 규정은 혐의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윤리위 측은 그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공개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장 윤리위는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식 조사가 이뤄지고 혐의가 공개됐는지 답해야 할 것이며,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과 증인이 확보됐는지도 추후 심리를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의원 측도 당시 제공했다는 술값, 식대, 숙박비, 카지노 칩 등 7800달러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하며 당시 현직 시의원의 직권을 비서로서 남용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지 못한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인성 기자

# ‘선물·식비’ 규모 입증은 쟁점

### 존이 LA시의원 제소 파장

#### ‘신고의무’ 이행에도 관심집중 주민들 당혹 속 “박해는 부당”

LA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2일 존이 시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뒤 시의회와 지역구는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마크 리들라-토머스의 원과 커렌 프라이스 의원에 이은 또 다른 스캔들이라고 꼬집었지만, 사실은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한도를 초과한 선물과 향응의 규모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다.

윤리위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임과 여행의 동행자들과 기술했다. 이 역시 향후 심리에서 논란이 이뤄질 부분이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여부도 핵심 중 하나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이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하고 일련의 조사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공화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선거운용 언론플레이라면 그의 당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에 열릴 시의원 선거에는 그라나다힐스 상의와 사우스주민의회 회장 출신인 마이클 베네데토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19년 보궐과 2020년 선거에 경쟁했던 무소속의 로레인 런퀴스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선거가 6개월가량 남아있어 경쟁 구도를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

12지구 지역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세실리아 양(52) 씨는 “이미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뭔가 감춰진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불러온다”며 “조속히 의혹이 해소되고 지역 현안에 시의회가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니어는 한 사이트의 관련 뉴스 댓글에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가 박해를 받는다면 부당하다”며 “이 의원도 윤리위를 반박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평소와 다른같이 회기 내용을 소화했다. 그는 필리핀계 유산의 달을 맞아 의회를 방문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다른 아시안 시의원들과 함께 환영했다. 기존에 부패 혐의를 받았던 의원들에 쏟아졌던 야유와 욕설도 없었으며 회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관련된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향후 윤리위 조치에 대한 대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 에어비앤비 투숙객, 540일 동안 돈도 안 내고 떠나지도 않고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면 손님을 가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치과 전문의가 자신의 브랜드우드 저택을 빌려줬다. 투숙객이 약 1년 6개월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투숙객 여성은 지난 2022년 4월로 계약을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시의 렌트안정화 조례에 따라 집 주인이 투숙하고 있는 여성을 퇴거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투숙 여성은 그렇다고 렌트비를 내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계약 만료 이후 지금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집 주인이 자신에게 이주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주면 나갈 의향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집 주인은 언덕 위의 천국같은 저택이 지금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LA 타임스 기사가 투숙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고객은 렌트비를 낼 이



에어비앤비 투숙객이 장기계약 만료 뒤에도 지금까지 540일 동안 무료로 눌러 살고 있어 집 주인이 골치를 앓고 있다.

[LA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현재 자신의 고객이 머물고 있는 방을 승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있는 샤워시설도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주인이 법을 어겼고 불법 주거 시설을 통해 렌트를 주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 주인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투숙 여성을 힘들게 하고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당 변호사는 말합니다.

집 주인은 2019년부터 저택 안에

조그맣게 지은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앤비로 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문체의 여성이 하룻밤 105달러로 계산해 6개월을 머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머문 날은 187일이었고 모든 비용을 더해 총 2만793달러를 받았습

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한달 전쯤부터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집 주인과 투숙객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주인은 숙소와 금전 제공 등으로 달래고 회유했지만 투숙 여성은 지금까지 540일 동안 그 숙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1년 6개월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집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지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사 원문: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10-04/airbnb-guest-refuse-pay-leave-luxury-rental> 김병일 기자

# 애틀랜타 출신 한인 감독 할리우드 영화제서 수상

애틀랜타 출신 한인 여성 영화감독이 최근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할리쇼츠(Hollyshorts) 필름 페스티벌’은 2005년부터 진행된 단편영화제로, 크리스티나 윤(사진)감독은 단편영화 ‘마더랜드’로 최우수 감독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입상한 ‘마더랜드’는 미국에서 자란 한인 입양인 주인공이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가서 출생의 비밀을 알아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당 작품은 ‘프로빈스타운 국제영화제’, ‘카타리나 오토-벤스타인 단편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윤 감독은 본인 홈페이지를 통해 “트라우마, 정체성 탐구 등의 장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이민자 이야기 그 이상을 담아내고 다양성을 표현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며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더랜드’ 외에 ‘거울’, ‘앨리스’ 등 그녀의 작품 및 예고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윤지아 기자

윤 감독은 스와니퍼치트리리지 고등학교 출신으로, 뉴욕대학교(NYU) 티시예술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시나리오 작성 및 디렉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한국 뮤직비디오 제작, 애플티비+ 시리즈 ‘파친코’에 작가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양한 단편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장로·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생업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33년, 소망의 미래로 힘있게 나아가는’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가 아래와 같이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감사와 축복의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당회원 일동

**장로장립 김민식, 신호선, 김광빈 권사임직 조성희 안수집사임직 김중현**

▶ **일시:** 주후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오후 4:00

▶ **장소:**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본당

※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하며, 축하 화원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 당일, 임직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전 11:00

15015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0 TEL: 703-818-9200

“사랑과 나눔의 구석구석, 복음으로 세계곳곳, www.kychurch.com로 들어오시면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가 더 잘 보입니다.”



# 한국차 판매 9개월 연속 '쾌속질주'

전통화 모델 덕을 톡톡히 본 한국차 3사가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각 업체가 발표한 9월 판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 월간 판매량은 14만28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표 참조>

한국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14만 대 이상 판매했으며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실적을 보여줘 실적 호조를 나타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해서는 1% 미만 소폭 감소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3사 총합 43만302대를 판매해 지난해 3분기 대비 1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9월 총 6만8961대를 판매했다. 작년 9월과 비교해서 16% 증가한 것으로 직전 달인 8월보다도 판매가 6% 늘었다. 3분기 총 판매량을 봤을 때도 20만534대로 9%의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대비 전기차 판매가 대폭 늘었다. 아이오닉5는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203% 증가한 3958대, 아이오닉6는 이달 1665대가 판매돼 눈에 띄었다. 특히 아이오닉5는 분기별 판매량을 봤을 때도 2022년보다 143%가 늘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소비자들의 SUV 선호에 힘입어 싼타페와 투싼은 각각 판매가 38%, 45% 증가했다. 반면 세단 모델 수요가 감소하면서 엘란트라와 쏘나타는 전년 대비 13%와 45%씩 감소했다. 기아는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판매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총 판매량은 6만7264대로 전년 대비 20% 늘었으나 전달까지 4개월 연속 7만 대 이상 판매 기록은 멈추게 됐다. 3분기 판매량은 21만341대로 작년 동기보다 14% 신장률을 기록했다.

기아도 전기차 부문에서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니로는 9월 2752대가 판매돼 작년 동월보다 무려 1341%나 급증했다. 다만 판매 신기록을 달성한 지난 8월에 비해서 29% 적었다.

8월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수립한 EV6와 텔루라이드, 카니발도 이달 판매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했다. 카니발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판매가 187% 늘어 브랜드의 시장 판매 점유율을 견인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총 6644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3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달 판매 기록인 6453대를 약 200대 앞서

브랜드	모델	9월		증감률(%)	3분기		증감률(%)
		2023	2022		2023	2022	
현대	엘란트라	9405	10761	-13	32565	37020	-12
	아이오닉5	0	0	0	0	7	N/A
	아이오닉6	3958	1306	+203	11665	4800	+143
	아이오닉7	1665	0	N/A	5073	0	N/A
	코나	6693	5252	+27	18593	12893	+44
	넥소	16	27	-41	68	74	-8
	텔루라이드	7551	6778	+11	19410	20119	-4
	싼타페	3051	2300	+45	9033	8600	+5
	쏘나타	12676	9192	+38	35020	28234	+24
	투싼	3401	6177	-45	10007	15643	-36
기아	니로	18813	12971	+45	52589	41554	+27
	벨로스터	0	209	N/A	0	664	N/A
	베뉴	1732	2107	-18	6510	6954	-6
	합계	68961	59465	+16	200534	184431	+9
	EV6	2084	1440	+45	6470	4996	+30
	기온	2036	1447	+41	7000	5362	+31
	카르타	10737	8404	+28	33074	30236	+9
	카스	6002	5383	+12	18697	18251	+2
	스텔라	117	454	-74	818	1480	-45
	소울	5290	5113	+3	15324	16837	-9
제네시스	니로	2752	191	+1341	9760	1045	+834
	스텔라	4736	4022	+18	14636	12416	+18
	스포티지	11562	12412	-7	35695	37383	-5
	소렌토	8103	7350	+10	24819	25555	-3
	텔루라이드	9147	8440	+8	28937	25403	13
	카니발	4636	1614	+187	13351	5822	164
	합계	67284	56270	+20	210341	184808	+14
	G70	1751	945	+85	4455	3190	+40
	G80	300	335	-10	886	920	-4
	G80 EV	137	69	+99	471	81	+481
3사 판매량 합계		142869	120642	+18	430302	384451	+12

면서 역대 월간 판매 신기록도 경신했다. 3분기 판매는 1만9427대로 전년 동기보다 28% 많았다. 전년 대비 가장 가파른 판매 증가세를 보인 모델은 G80 EV로, 1년 새 판매가 99% 늘었다. 특히 G80 EV의 3분기 판매량은 4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 증가했다. GV60도 9월 판매가 지난해 대비 90% 증가해서 전기차 라인업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우훈식 기자

## '상원의원 출마 선언' 앤디 김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 1위

내년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 김(41)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당내 경쟁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엔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는 5일 뉴저지의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뉴저지의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넨데스 의원 자리에 도전하는 인물로는 김 의원 외에도 필 퍼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테미 퍼피도 거론되고 있다.

3과전이 벌어질 경우 김 의원은 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 퍼피 여사가 19%를 차지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메넨데스 의원의 지지율은 5%에 불과했다. 김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의 가장 양자 대결에서는 김 의원이 63%의 지지율로 메넨데스 의원(10%)을 압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엑스(X)트위



터 계정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난 메넨데스 의원을 이길 수 있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된다.

뉴저지주 남부에서 자란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중동 안보 전문가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이지만, 그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고, 오차는 ±4.4% 포인트다.

## "비닐백 쓰고 목에 테이프 감긴 채 발견"

해피홈케어 한인 피살자 2명

한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바 요양 시설 '해피홈케어(The Happy Home Care for Elderly)'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 살인 사건에 대해 추가 정황이 공개됐다. LA카운티검시국 데이비드 심슨 검시관은 사건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 박희숙(83)씨와 모니카 이(75)씨가 발견된 곳은 요양 시설 건물 뒤편 화장실이었다고 최근 '이스트베이트타임즈'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비닐봉지(plastic bags)가 씌워져 있었고

목에는 테이프가 감겨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화장실 바닥에서 몇 개의 비닐봉지와 절연테이프, 벨트, 익스텐션 코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검시국은 최근 두 희생자가 '목 압박 및 질식'에 의해 숨졌으며 사망 원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계 간병인 지안준리(40)는 사건 당일 아침에 도착한 요양시설의 김모 대표에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며 두 시니어를 살해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들은 김모 대표는 911에 신고했고 리는 체포됐다.

검시국에 따르면 피해자 박씨에게서

치매 치료제 등 3가지 약물이 검출됐다. 박씨는 당뇨병과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최근 왼쪽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에게서도 한 가지의 약물이 검출됐지만 "사망 사인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심슨 검시관은 전했다.

한편, 피의자 리는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현재 수감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리에게는 살해 혐의 2건이 적용됐으며, 검찰은 추가로 '취약자 대상 범행' 및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 행위' 혐의도 제기했다. 리에 대한 예비 심리는 오는 12월 7일 포모나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우 기자

## 살 빼는 약, 위장질환 유발 위험 ↑

'오젠폍·위고비·리벨서스·삭센다' 등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후 비만치료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약물들이 체장염·장폐색·위 무력증 등 심각한 위장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마야르 에트미먼 교수와 모히트 소디 연구원(박사과정)은 6일 의학지널 '미국의학협회지'(JAMA)에서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와 체장염·장폐색·위 무력증 등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는 포

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에 작용하는 약물로, 비만 치료제인 오젠폍·위고비·리벨서스(세마글루티드·왼쪽)와 삭센다(리라글루티드·오른쪽)의 성분이다.

GLP-1 작용제는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지난 10여년간 체중 감량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21년에는 비만치료제로 허가됐으며, 2022년 미국에서만 약 4천만 건이 처방됐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와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미라조 몰 대저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 “추가건설 없다더니” 바이든도 약속 깨고 국경장벽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추가 장벽 건설에 착수한다.

국토안보부는 5일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벨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애용됐던 조치다.

이번 조치는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급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특히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되 불법 이민 처벌을 강화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잠시 주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는 듯했던 중남미 불법 이민이 다시 늘며 우려가 가중하는 상황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유력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이민 문제에 있어 ‘비상 처방’을 선택한 셈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리오그란데 벨리에만 24만5천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다. 장벽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2019년 회계연도에 총당한 장벽

건설 자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돼야 한다.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도가 첨부되지 않았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앞서 지난 6월 해당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기존 장벽에 20마일(32km)을 추가하는 구상을 공유하고 공공 여론을 청취해 왔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모두 450마일(724km) 길이의 장벽이 건설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벽 건설을 추진했지만, 연방 정부는 이 계획을 보류시켜 왔다.

이번 조치를 놓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헨리 쿨엘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경 장벽은 21세기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14세기적 해법”이라며 “이것으로 국경 안보가 강화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을 비효율적인 장벽에 낭비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메리칸드림 아닌 악몽 될 수도”

멕시코를 방문한 뉴욕 시장이 망명 신청자들을 향해 아메리칸드림이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포스트는 5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밤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성당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과달루페 성당은 중남미에서 멕시코로 이민 희망자들이 미국을 향해 떠나기 전 들려 기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애덤스 시장은 현지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라면서도 “현재 미국의 상황과 도전을 투명하게 알려야 이민 희망자들도 현실에 맞는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메리칸드림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꿈이 악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으로 가는 여정이 아주 위험할 수 있고, 미국에 도착한 뒤 경험할 현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멕시코시티 과달루페 성당을 방문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가운데)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기간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 이민 문제를 해결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전 세계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가 파나마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을 거쳐 오는 만큼 해당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애덤스 시장은 4일간 멕시코와 에콰도르, 콜롬비아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민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북한 남침 때 파병’ 찬성 50%뿐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가 주도한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낙마에 이어, 연방정부 ‘헛다운(예산 지출 중단)’ 사태에 다시 직면할 위기에 빠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우회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미국인 사이에 선 전과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가중된 피로감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하원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현안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이 지난달 30일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 지원분에 대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며 의회 예산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 우회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3%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수 물자 제공에 찬성했다. 다만, 지난해 3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79%와 비교하면 찬성 여론은 줄었다. 민주당 지지자의

77%, 공화당 지지자 50%가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 찬성 여론은 1년여 만에 80%에서 50%로 확 떨어졌다.

CCGA는 “역사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보다 미군의 해외 주둔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런 전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보내 방어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찬성한 응답은 50%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2021년 63%, 지난해 55%에 이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같은 기간 68%→54%→46%로 보다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렸다.

중국이 일본을 침공할 경우 보호해야 하는냐는 질문엔 반대(55%)가 찬성(43%)을 앞섰다. 주한·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에는 각각 63%와 65%가 찬성했다. 1년 전 조사보다 각각 14%포인트와 7%포인트 줄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동맹에 예산을 투여한 안보 제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는 각각 71%, 77%, 65% 비율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강태화 기자

# 하원의장 경선 본격화...“조던·스컬리스 2파전”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의 반란으로 자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차기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오하이오)은 4일 기자들과 만나 ‘하원의장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하원의장 도전을 공식화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던 위원장과 스컬리스 원내대표 두 명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 하원의장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특히 이번 반란을 주도한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였던 조던 위원장은 연초 하원의장 선거 때도 매카시 전 의장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그는 매카시 전 의장을 지지하고 매카시 전 의장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한터 바이든 의회 등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으며, 매카시 전 의장이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협력적으로 일했으나 강경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 역시 하원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전 의장에 이어 하원 공화당 서열 2위인 그는 당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는 2017년 야구 연습장에서 총격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에



짐 조던(왼쪽) 법사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로이터]

는 혈액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고 있어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상태다.

이밖에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 보수 모임인 ‘공화당 스티디 위원회’ 의장인 케빈 헤른 의원(오�클라호마) 등도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연방 하원 의장 선거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하루 전인 10일에 후보들의 경선 발표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장은 과반 득표로 결정되며 이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의장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221명)과 민주당(212명)간 격차가 크지 않고 20명 정도 되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이번에도 이탈할 경우 연초보다 의장 선출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15차례 투표 끝에 하원의장에 당선됐으며 이 과정에 강경파에 다양한 양보를 했다. 이번에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되게 된 계기가 된 해임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낮춘 것도 그중 하나다.

##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위한

# 가을 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을을 담은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파가니니, 슈베르트, 푸치니, 모차르트, 바흐, 드뷔시와 볼프 등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10월 14일 (토) 오후 3시 (입장 시작: 오후 2시 30분)

🌟 **장 소:**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McLean Korean Presbyterian Church)  
7144 Old Dominion Dr, McLean, VA

🌟 **입장료:** \$20 (동반 자녀 무료) \* 추가 주차장이 교회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admin@ewhadcchapter.org (총무 윤서연: 415-484-9030)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워싱턴 DC 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워싱턴 DC 지회, 지회장: 최미나 www.ewhadcchapter.org



health  
markets<sup>®</sup>  
건강보험마켓



## 귀하의 삶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의 메디케어(Medicare)가 필요하신가요?

올바른 메디케어 혜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오늘 전화하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

**1-800-601-868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현지 시간)

HealthMarkets Insurance Agency, Inc.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3 HealthMarkets

48789aKOR-HM-0923



# LG家 경영권 향방 가를 ‘유언메모’ 공방... “본적 없다” “폐기돼”

“원고들은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서 작성 후 실무진이) 폐기했습니다.” (증인 하범중 LG 경영지원부부장)

LG그룹 일가 상속 관련 분쟁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 메모’ 존부를 다투는 것으로 시작됐다.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낸 소송이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구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범중 LG경영지원부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20년 전 재무관리팀장 시절부터 구 전 회장에게 매일 아침 첫 보고를 올리고, 가족 개인 재산도 관리해 왔다.

하 부문장은 자신이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의 ‘유언’을 직접 들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이 뇌

종양 판정을 받아 병실에 있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저를 찾아 말씀하셨다”며 “(구 전 회장이 말하길) ‘회장은 구광모가 해야 하고, (현재)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게 하라’며 경영 재산 전체를 (구광모 회장에게) 넘기는 걸로 말씀 주셨다”고 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구광모 회장 등이 있었는데 (구 전 회장이) ‘다 나가라’고 해 저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후 하 부문장은 사무실로 가 들은 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했고, 출력한 문서에 구 전 회장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배우자보다도 신임이 두터웠나”는 세 모녀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신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날 증언 내내 해당 문서를 ‘유언장’이 아닌 ‘승계 문서’라고 말했다.

하 부문장에 따르면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넷이다. 하 부문장은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



구광모



고(故) 구본무



김영식



구연경

냐”는 세 모녀 측 임성근 변호사의 질문에 “세 모녀와 구 회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를 본적이 없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원고들은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며 “하 부문장이 (문서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를 대야 하지 않겠나”고 의구심을 표했다.

문제의 ‘메모’ 내지 ‘승계 문서’는 현재 없다고 한다. 임 변호사가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나”고 묻자 하 부문장은 “저희 팀 서류 보관하는 데에 보관했는데 (현재는) 폐기됐다”고 했다. 상속은 상속인들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상속이 완료됐기에 해당 메모를 실무진이 폐기했다는 설명이다. 하 부문장은 “(LG그룹은 상속을 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어차피)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도, 유언장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그룹 총수의 상속 유지(遺存)를 담은 문서고, 서명까지 했는데 실무진에서 그냥 폐기하느냐”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구 회장은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방안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려 한단 입장이다. 이날 재판

에 구 회장과 김 여사 등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이 대신 뜻을 전했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원고들이 지난해부터 뜬금 없이 유언장 있지 않냐며 항의했고, 막 무가내로 반복하는 것에 의아하지 않았느냐”며 하 부문장의 공감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여사의 서명이 담긴, ‘가족을 대표해 경영 재산의 상속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이날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세상을 떠난 구 전 회장은 (주)LG 주식 등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는데, 회장직을 이어받은 구광모 회장이 (주)LG 주식 중 8.76%를, 나머지를 두 딸이 나눠서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까지 총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이찬규 기자  
[사진출처=LG그룹,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경기도]

##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 작품 관통 희곡·소설·시 쓰는 ‘21세기 베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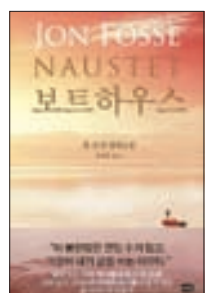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받은 노르웨이 은 포세 단순한 것에서 철학적 질문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 부여

올해 노벨 문학상은 북유럽 거장 은 포세(64)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의 포세는 현대 희곡뿐 아니라 소설과 시, 아동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명작을 남겨 ‘제2의 헨리크 입센’, ‘21세기의 사무엘 베케트’라 불리는 작가다. 북유럽 문학의 기수로 평가받는 그는 북유럽 특유의 철학적이고, 허무한 정서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 탁월한 서사로 승화시키는 작품을 주로 써왔다. 노르웨이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비에른스티에르네 비외른손(1903), 크누트 함순(1920), 시그리드 운셋(1928)에 이어 네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5일 (현지시간) 세계에 생중계된 유튜브 발표에서 포세를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한 혁신적 희곡과 산문의 작가”라고 소개했다. 또 “그의 작품은 희곡·소설·시집·에세이·아동도서·번역서 등 방대한 장르와 작품을 아우른다”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는 극작가 중 한 명이지만 산문으로도 점점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은 포세와 그의 대표작 『보트하우스』



[AFP·연합뉴스]

포세는 성명을 통해 “(수상 소식에) 압도되고 다소 두렵다. 이상은 다른 어떠한 고려 없이 문학성을 가장 지향하는 문학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인터뷰에서는 “전화가 왔을 때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비해 왔다”며 “전화를 받은 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1959년 노르웨이 해안 도시 헤우게손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비교문예학을 전공했고, 호르달란주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쳤다. 1983년 장편 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한 후 『보트하우스』 『병수집가』 『납 그리고 물』 등을 출간했다. 그의 작품은 세계 40여 개 언어

로 번역됐다. 특히 희곡은 세계 무대에 1000회 이상 올랐다. ‘인형의 집’을 쓴 헨리크 입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상연된 노르웨이 극작가로 꼽힌다.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다. 장편소설 『보트하우스』를 번역한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는 “포세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라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같은 웅장하고 신비한 자연이 주는 고립감, 타인을 향한 불안감, 삶과 죽음 같은 테마를 주로 다룬다”고 말했다.

포세의 작품은 주로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큰 주제로 이야기가 확장된다”는 게 홍 교수 설명이다. 그는 “포세는 가족, 연인 등 관계에서 생기는 심리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풀어낸다”고 했다. 윤시향 원광대 명예교수는 “포세는 음악이 흘러가는 것처럼 리듬이 교차하는 식으로 작품을 전개한다”며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철학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작가”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장편소설 『보트하우스』 『아침 그리고 저녁』, 어린이 책 『오늘이』 등이 출간됐다. 장편소설 『멜랑콜리아』가 20일 국내에 출간될 예정이다. ‘가을날의 꿈’(2006), ‘겨울’(2006), ‘이름’(2007), ‘기타맨’(2010), ‘어느 여름날’(2013) 등 희곡을 바탕으로 한 연극도 국내에서 초연된 바 있다.

홍지유·김호정·어환희 기자

## “23년 전 조서, 왜곡 가능성 충분 재심 증거로 다루기엔 억울할 수도”

‘누명 벗기기’ 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사진) 변호사는 재심 전문가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을 뒤져 오래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은 속성상 오래 걸리고 이미 말은 사건을 그만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계속하게 된다고 했다. 그가 맡은 10여 건은 이미 국내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록이다. 그는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오는 12월 제15회 영산법률문화상을 받는다. 민간 분야 범죄 관련 상 중 최고 권위의 상이다. 박 변호사는 4월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지만, 이 분야 연구 업적은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2000년 전남 완도의 외판 버스정류장에서 김신혜(당시 23세)씨 아버지(당시 52세)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씨 고모부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했다”고 신고해 김씨가 체포됐

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부검 결과 아버지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돼,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모부가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해 동생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2015년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경찰의 위법 행위가 인정돼 재심의 길이 열렸다.

박 변호사는 “16일 재판에 부검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원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그 재판이 이 사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검의는 김씨 아버지 위(胃)에서 사망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을 복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의학자들 의견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면 알약을 100알 넘게 복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오히려 좀 받고, 억울한 일도 좀 겪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제가 변호하는 분들은 사람도 안 죽였는데 사람 죽였다는 누명 쓰고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아주 큰 오해를 받고 살았지 않나”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16% ALC/VOL. Hitejinro America, Cerritos, CA. Please drink responsibly.



원조의 맛은 그대로~  
제로 슈거로 칼로리는 쏘~옥!

# 소주의 핑크시대 개막 초말콤하게 미국랜딩



**진로 제로 슈거 핑크 에디션**

EASTERN WHOLESALE, INC.  
301-470-0310

**소주의 원조 진-로**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 H MART

### WICKED WITCH FINGER KIMBAP FOR HALLOWEEN

This Halloween treat will be the most bewitching finger food at your haunted gathering this month, you might even startle yourself!  
곧 다가올 할로윈 파티를 위해 H 마트와 함께 어마무시한 마녀 손가락 김밥을 만들어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VA/MD WEEKLY SALE OCT. 6th - OCT. 12th, 2023

<b>Packed Rocket Apple</b> 팩 로켓사과 3LB/PKG <b>\$6.99</b>	<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49</b>	<b>Jacket Broccoli</b> 자켓 브로컬리 EA <b>\$2.29</b>	<b>Jacket Cauliflower</b> 자켓 컬리플라워 EA <b>\$3.99</b>	<b>Niabel Grape</b> 니아벨 포도 80X <b>\$17.99</b>	<b>3 Pcs Pepper</b> 삼색피망 16OZ/PKG <b>\$2.99</b>	<b>Cantaloupe</b> 캔탈루프 EA <b>\$2.99</b>	<b>Yellow Watermelon</b> 옐로우 수박 EA <b>\$3.99</b>
<b>유기농장 유기농 허프앤하프</b> ORGANIC FARM Organic Half & Half 16 OZ/PKG <b>\$4.99</b>	<b>JINGA Tofu</b> 진가 두부 SOFT/FIRM/SILKEN - 16 OZ/PKG <b>\$0.99</b>	<b>Red Leaf Lettuce</b> 레드 상추 BUN <b>\$0.99</b>	<b>Plum Tomato</b> 플럼 토마토 LB <b>\$0.99</b>	<b>Sweet Pepper</b> 파리고추 LB <b>\$2.49</b>	<b>White Nectarine</b> 화이트 넵타린 LB <b>\$1.99</b>	<b>Watercress</b> 워터크레스 BUN <b>\$0.99</b>	<b>Lago Grape</b> 팩 라고 포도 3LB/PKG <b>\$8.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b> Rough Flanks 생 소맥살 LB <b>\$6.99</b>	<b>Fresh Pork Neck Bones</b> 생 돼지목뼈 FAMILY PACK LB <b>\$1.79</b>
<b>Fresh Chicken</b> Drumstick 닭북채 (닭다리) FAMILY PACK LB <b>\$0.79</b>	<b>Fresh Pork Spare Rib</b> 바베크용 생돼지갈비 LB <b>\$3.99</b>
<b>Frozen Beef Leg Bones</b> 냉동 사골 LB <b>\$1.59</b>	<b>Marinated Sliced Beef</b> Short Ribs 양념 LA 갈비 LA STYLE LB <b>\$12.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b>Frozen 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산 고등어 400-600'S/LB <b>\$1.99</b>
<b>Frozen Squid Tube</b> 오징어 튜브 LB <b>\$3.99</b>	<b>Frozen Cooked Shrimp</b> 통통배 쿡새우 41-50'S 1LB/PKG <b>\$8.99</b>
<b>SUHYUP Frozen Jeju Beltfish</b> 수협 제주 은갈치 PKG <b>\$6.99</b>	<b>Frozen Skate Wing</b> 홀어 LB <b>\$3.99</b>

### SMART CARD MEMBER ONLY

<b>KOKUHO Medium Grain White Rice (Yellow)</b> 국보쌀 (옐로우) 15 LB <b>\$13.99</b>	<b>California Fuyu Persimmon</b> 캘리포니아 단감 BOX <b>\$19.99</b>
<b>CHUNGJUNGWON O'Food Bap Cooked</b> Sticky White Rice 청정원 즉석밥 7.4 OZ X 12 EA/BOX <b>\$11.99</b>	<b>Red Pepper Powder</b> Coarse 태양초 굵은 고춧가루 4LB <b>\$13.99</b>
<b>NONSHIM Shin Ramyun/Neoguri</b> 동심 신라면/너구리 4.23 OZ X 4 EA X 4 PKG/BOX <b>\$14.99</b>	<b>NAMYANG French Cafe Coffee Mix</b>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2.4LB (100 STICKS/BOX) <b>\$10.99</b>

### ORGANIC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b>ORGANIC FARM Organic Premium Short Grain Rice</b>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b>\$54.99</b>	<b>ORGANIC FARM Organic Sweet Rice</b> 유기농장 유기농 찰쌀 15 LB <b>\$42.99</b>	<b>TODAY'S FARM Organic Grade A Medium Eggs</b> 투데이팜 유기농 A등급 황달걀(중) 1 DOZ/PKG <b>\$3.99</b>
---	---	---

<b>RAW NATURE Brown Rice</b> 자연담은 현미 15 LB <b>\$14.99</b>	<b>PALDO Ramen</b> 팔도 비빔면/해물라면/일품짜장면/진국설렁탕면 SELECTED VARIETIES 3.59-7.05 OZ X 4-5 EA/PKG <b>\$4.99</b>	<b>ORION Chocipie</b> 오리온 초코파이 ORIG. WITH VANILLA BEAN CREAM / WATERMELON 11.29-11.85 OZ (8-12 EA/PKG) <b>\$3.99</b>	<b>HA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b> 해오름 견질칸 맛밤 3.52 OZ <b>5\$5</b>	<b>KDR Fishcake/ Fried Tofu Udon</b> 키다리 휴게소 어묵/통유부우동 FROZEN 1.25-1.34 LB <b>\$5.99</b>	<b>DOMINO Pure Cane Granulated Sugar</b> 도미노 설탕 4LB <b>\$3.49</b>	<b>TODAY'S FARM Grade A Medium White Eggs</b> 투데이팜 A등급 백란(중) 18 CNT/PKG <b>\$2.29</b>
<b>PULMUONE Mozzarella Corn Dogs</b> 풀무원 핫도그 FROZEN/ POTATO/ FISHCAKE/ CHEDDAR & FISHCAKE 12.7-14.1 OZ <b>\$5.99</b>	<b>HAIOREUM Dumpling Wrapper</b> 해오름 만두피 FROZEN/14 OZ <b>\$2.49</b>	<b>CHUNGJUNGWON O'Food Mild Ssamjang Soybean Paste</b> 청정원 순창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1.1 LB <b>\$3.49</b>	<b>CHUNGJUNGWON O'Food Korean BBQ Marinade for Beef</b> 청정원 소불고기/갈비양념 BULGOGI/GALBI 1.1-1.8 LB <b>\$3.99</b>			
<b>PULMUONE Wheat Flour/Rice Cakes</b> 풀무원 밀/쌀떡볶이떡 22.9 OZ <b>\$2.99</b>	<b>HAIOREUM Premium Tea with Honey</b> 해오름 더 진한 유자차/생강차 CITRON/GINGER - 2.2 LB <b>\$5.99</b>	<b>CHUNGJUNGWON O'Food Dumplings</b> 청정원 오뚜기 김치고기/치킨치즈/치킨 만두 FROZEN/KIMCHI PORK/CHICKEN/CHICKEN CHEESE - 1.5 LB <b>\$6.99</b>	<b>CHUNGJUNGWON Olive Oil Green Layer</b> 청정원 건강향 올리브유 파래김 0.71 OZ X 10 EA/PKG <b>\$13.99</b>			
<b>CHORIPDONG Frozen Oyster</b> 초립동이 신선한 생굴 1 LB/PKG <b>\$6.99</b>	<b>DAIFUKU Frozen Fish Cake</b> 다이푸쿠 손생선살 중합어묵 2.2 LB <b>\$6.99</b>	<b>TWOSOME Ice Cream</b> 투스엄 아이스크림 ICE BOX/YOGURT STRAWBERRY/STRAWBERRY CHOCOLATE - 16.02 FL OZ <b>\$4.99</b>	<b>NONGHYUP Drink</b> 경복농원 생배/생복숭아 드링크 PEAR PEACH - 8.11 FL OZ X 12 CANS/BOX <b>\$7.99</b>			

### BUY 1 GET 1 FREE \$99.99

Until OCT. 26th 2023  
동원천지인 황제침향단  
조선시대 왕들의 지양장제인 침향으로 만든 동원 천지인 황제침향단! 심신 안정과 눈과 머리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주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Indonesian Emperor Aleswood Premium to support a healthy immune system.

**EMPEROR ALESWOOD PREMIUM**  
3.4 OZ (0.13 OZ X 30 EA/BOX)  
**\$49.99** (40% OFF)  
**\$29.99**

### HELLO HOME SMILE, YOU'RE HOME!

<b>KUHAUS Retro 2 Slice Toaster</b> 쿠하우스 레트로 토스터기 IVORY/MINT - EA <del>\$24.99</del> <b>\$17.99</b>	<b>KOTO Glass Tea Kettle with Stainless Steel Infuser</b> 코토 유리 티망 (스텐) 주전자 40.57 FL OZ/EA <del>\$15.99</del> <b>\$9.99</b>
<b>BBQ Plate</b> 아외용 바베크 삼단 접시 BROWN, GREEN & YELLOW 3PCS/SET <del>\$7.99</del> <b>\$4.99</b>	<b>Footbath Bucket</b> 족욕기 IVORY/PINK - EA <del>\$15.49</del> <b>\$9.79</b>

### BRAND DAY Sale

Until Oct. 12, 2023

정정원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 진가 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 |  |  |  |   |  |  |   |  |  |   |  |  |
|--|--|--|---|--|--|---|--|--|---|--|--|
| <b>FAIRFAX</b><br>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b>ANNANDALE</b><br>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b>CENTREVILLE</b><br>13818 Bradl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b>FALLS CHURCH</b><br>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b>MANASSAS</b><br>8819 Center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BURKE</b><br>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b>HERNDON</b><br>1228 Eldon St., Herndon, VA 20170 | <b>CATONSVILLE</b><br>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b>GAITHERSBURG</b><br>9639 Lost Knite Rd., Gaithersburg, MD 20877 | <b>WHEATON</b><br>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b>FREDERICK</b><br>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b>ELLCOTT CITY</b><br>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
|--|--|--|---|--|--|---|--|--|---|--|--|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VA/MD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합업을 원하신다면 지역 연락처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 자궁 안에 정관이 있다고? 24년 만에 뜻 바꾼 국어사전

(精管)

전직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박일환(62) 씨는 “국어사전을 보다 보니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 했다. 신선한 시어(詩語)를 발굴할 요량으로 가까이 지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가 찾은 것은 술한 오류와 허접이었다. 어떻게든 국어사전이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2015년 『미친 국어사전』을 시작으로 『국어사전 혼내는 책』(2019), 『맹랑한 국어사전 탐방기』(2020), 『국어사전 독립선언』(2022) 등을 연이어 펴내며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 “최다 표제어 등에 집착한 성과주의의 산물”이라며 “오류로 점철된 국어사전을 ‘국가대표’ 사전으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우리 문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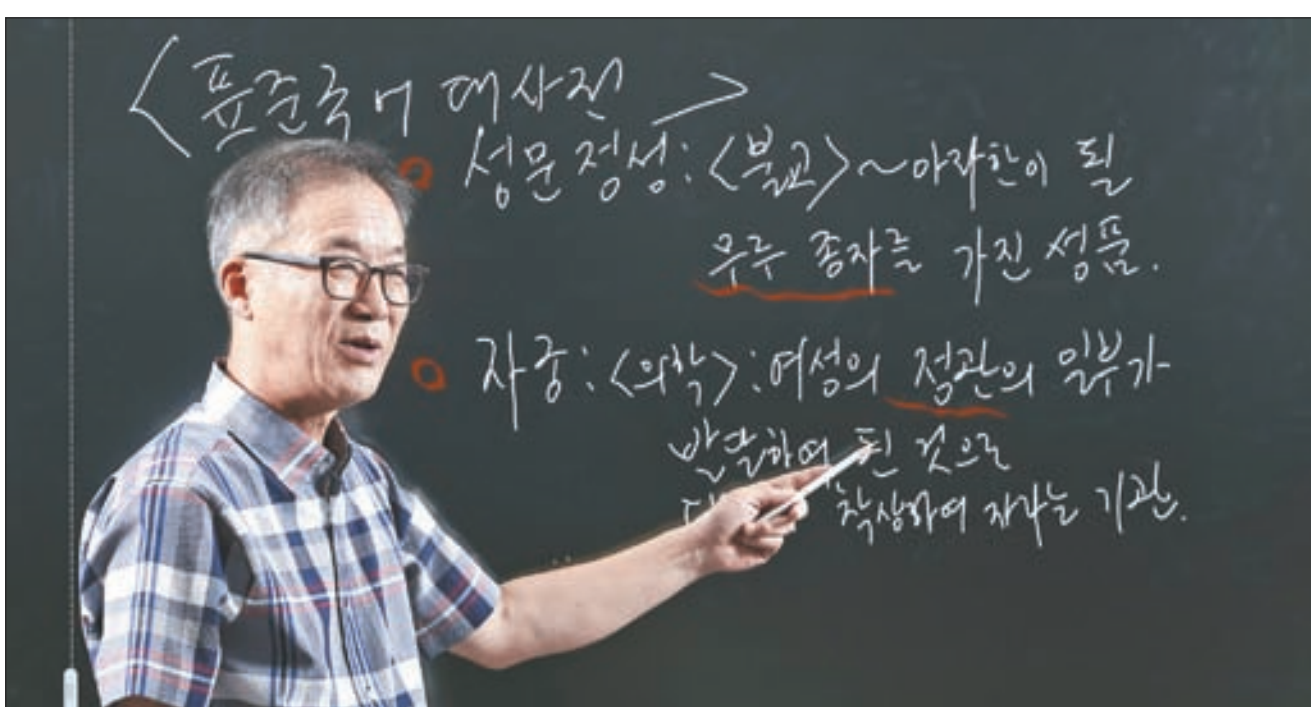
1999년 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정부가 직접 나서 편찬한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1991년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92년부터 7년여에 걸쳐 500여 명의 인원과 112억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표제어 50여만 단어를 총 7328쪽에 담아낸 막대한 분량이다. 2008년부터는 종이사전 대신 인터넷 ‘웹사전’으로만 발간된다.

## 백과사전·일본사전 배긴 흔적

표준국어대사전의 최대 문제점은 “수많은 한자어·외래어·전문어 등을 끌어와 표제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무성의한 뜻을 남발한 것이다. 기존 백과사전이나 일본사전을 베낀 흔적도 많다. 이를테면 ‘전선병(여자의 긴 양말이 세로로 울이 풀리는 일)’, ‘몽롱체(시문·회화 따위에서, 명확한 의미나 윤곽 따위를 갖지 않은 것)’ 등 낯선 단어를 표제어로 올리고 일본사전의 뜻을 표절하다시피 옮겨 적었다. 내용 자체가 틀린 경우도 여럿이다. ‘자궁’을 ‘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을 정도다. ‘정자가 이동하는 관’인 정관이 여성의 몸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는 채소 “당근”의 사례를 ‘사전 뺑뺑이’를 해야 의미 파악이 가능한 뜻풀이의 예로 들었다.

“당근: 산형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나오기 상 복엽이다. 여름에 흰 꽃이 줄기 끝에 복사형 화서로 피고, 원뿔 모양의 불그러운 뿌리는 식용한다.”

“우상”이 뭘까. 사전을 다시 검색해 ‘새의 깃 모양(羽狀)’이란 것은 알 수 있



2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만난 박일환씨가 전자칠판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오류를 적으며 설명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만 살펴봐도 1000개 이상의 오류를 금세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었다. 하지만 ‘복산형’은 표제어로 수록돼 있지 않았고, ‘산형’도 없었다. 한자 사전까지 찾아보고 나서야 ‘우산 모양’이란 ‘산형’의 뜻을 알게 됐다.

그는 “‘꽃차례’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화서’라는 한자어를 썼다”며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펼쳤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걸 사전으로 서 부적합”이라고 성토했다.

##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국가대표’ 사전

“무엇이 가장 우려스러운가.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말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어에 대해 지레 겁먹고 주눅이 들게 한다. 또 국어사전의 난해한 뜻풀이가 어려운 말, 특히 한자나 영어가 더 수준 있는 언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쉬운 말이 더 좋은 말이라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간명하고 쉽고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란 걸 사전이 모범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신조어·방언 등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어휘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2016년부터 개방형 한국어 사전 ‘우리말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말샘 표제어는 115만여 개에 이른다.

“세상에 떠도는 온갖 말이 다 우리말샘 표제어로 수록돼 있다. 유행어라고 볼 수도 없는, 곧 사라질 낱말도 다 갖다 뒀다. ‘몸매’가 들어간 표제어만 해도 극세사 몸매, 명품 몸매, 반전 몸매 등 수십 가지다. 줄임말도 엄청나게 많은데, 게임을 알지 못하다는 ‘게알못’, 배구를 알지 못하다는 ‘배알못’, 연애를 알지 못하다는 ‘연알못’ 등이 다 우리말

샘의 표제어다. 다양한 어휘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세워 집중해야 할 부분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전 아쉬워

“외국의 국어사전은 어떤가.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1857년부터 71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학자가 동원돼 1928년 초판이 완성됐다. 실제 문학작품이나 신문 기사에서 뽑아온 다양한 용례가 가장 큰 장점이다. 해당 단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려면 예문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

“또 추천할 만한 사전이라면, ‘4000여만 부가 팔린 일본의 ‘신메이카이(新明解) 사전’의 뜻풀이도 좋은 모델이 된다. 개성 넘치는 표현으로 듣는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단어의 의미를 전달한다. 예컨대 ‘연애’에 대한 이 사전의 풀이는 ‘특정 이성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고양된 기분으로 둘만 함께 있고 싶고 정신적인 일체감을 나누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육체적인 일체감도 얻고 싶지만 항상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잡거나 드물게 이루어져서 환희하는 상태에 몸을 두는 것이다.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이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귀어’로 풀이한 단어다.”

“오는 9일은 제577호 한글날이다. 해마다 한글날이면 ‘한글 파괴’가 논란이다. ‘한글 파괴와 언어 파괴는 별개 문제다. 한글 파괴라고 하면 ‘명명’을 ‘명

명’으로, ‘명작’을 ‘명작’으로 쓰는 것 정도일 텐데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어 파괴 문제에서도 외래어를 많이 쓴다거나 지나친 줄임말을 쓰는 것 정도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커피 나오셨습니다’처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언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게 상품으로 환원되는 상품경제 시대에서 소비자는 왕이라는 인식, 지나친 소비자 중심주의가 ‘존대어 과잉’이란 언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맞나

“다른 사례를 꼽는다면, ‘같은 이유에서 ‘이리 오세요’, ‘돌아 누우세요’란 말 대신 ‘이리 오실게요’, ‘돌아 누우실게요’가 통용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써야 할 어미 ‘~게요’를 상대방에게 쓰는 셈이라 어법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표현도 맞는 표현으로 용인될지 모르겠다. 말을 바르게만 들려면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언어를 갖가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습과 환경을 돌아보는 게 먼저다.”

“언어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학적 표현으로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지식인,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 등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특히 정치인들의 억지 쓰기와 목소리 높이는 말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로 이뤄지는 언어생활의 기본을 흔든다. 국회에서 질문을 던져 놓고 답변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막 소리는 광경이 익숙하다. 경청이 안 되면 언

어생활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언어 파괴다.”

그와 인터뷰를 마친 뒤 국립국어원에 반론을 받기 위한 문의를 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자궁의 뜻풀이가 ‘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다.

4일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사전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1990년대 기존 사전을 참고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집필하면서 ‘수관관’을 ‘수정관’으로 잘못 인용했고, 이후 ‘수정관’을 일괄적으로 같은 뜻인 ‘정관’으로 바꾸면서 함께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여성은 정관이 없다”며 뜻풀이의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만 2017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 올라왔고, 박씨가 2019년 펴낸 『국어사전 혼내는 책』에서도 언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오류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립국어원 이대성 사전팀장은 “외부 의견이 올라오면 비속어 등을 걸러내는 1차 검토를 마치고 내용 검증의 2차 검토를 한다. ‘자궁’에 대한 의견은 1차 검토를 끝낸 뒤 2차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인력이 부족해 밀려있는 사안이 많다”고 대답했다.

## 국어사전 담당 학예직 3명 불과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사전 업무를 하는 학예직 공무원은 3명이고,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13명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 절차는 단순 오류는 국립국어원 사전팀에서 수정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열리는 정보보안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 해 수정 건수는 총 500~600건 정도다.

국립국어원은 본지가 문의한 지 2시간여 만인 4일 오후 1시39분 ‘자궁’의 뜻풀이를 ‘여성 생식 기관의 하나. 골반 안쪽에 있으며, 수정란이 착상하여 분만 때까지 태아가 자라는 기관’으로 수정했다.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이 처음 발간된 이래 24년 만이다.

이지영 논설위원

◆박일환=1992년 전태일문학상 단편소설 우수상 수상.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시인 등단했다. 1987년부터 30년 동안 중고교 국어교사 생활을 하며 시집 『푸른삼각뿔』 『학교는 입이 크다』 등과 『국어 선생님, 잠든 우리말을 깨우다』 『미주알고주알 우리말 속담』 『나는 바보 선생입니다』 등을 냈다.

##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 김원근 변호사

##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식품 추석맞이 판촉행사

전라남도와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롯데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식품 추석맞이 판촉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D 락빌 롯데플라자**

**10.5.2023 ~ 10.8.2023**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301) 417-8678

**VA 애난데일 롯데플라자**

**10.12.2023 ~ 10.15.2023**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571) 419-6954

**MD 게이더스 롯데플라자 10.19.2023 ~ 10.22.2023**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301) 527-6980



**신규입하 제품**

- ▶ 건세척냉이, 냉동냉이, 건피마자, 건부지깻이, 건곤드레, 냉동곤드레, 건질경이, 건눈개승마, 애호박, 고구마순, 방풍나물, 건도라지건가지, 건고사리 및 냉동고사리, 건무청, 냉동무청, 건단호박 등 나물류
- ▶ 삼채굴비, 삼채고등어, 삼채은갈치 등 생선류

**특가 세일 실시**

-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대) 10마리
-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중) 10마리

- 영광 법성포 굴비 1.8kg/20마리
- 영광 법성포 (찐)보리굴비 1마리
- 자숙냉동전복(1키로, 3미5미 등)

**완도전복, 전복죽, 광어죽, 다시마냉면, 전복볶음밥 등 다양한 완도군 제품도 판매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제품을 할인행사를 병행합니다.**

**농식품:** 모시송편(등부, 깨, 개떡), 약과, 감자떡, 한국산 서리떡, 울무, 발아현미, 청자조, 찰수수, 압맥, 할맥, 순 한국산 생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전통 고추장, 전통 된장, 청국장, 옛기름, 들깨가루, 창평엿

**건어물/수산:** 영광법성포굴비, 보리굴비, 굴비고추장, 모시송편, 여수고막, 갈치포, 뱀어포, 학꽂치, 곱창김, 재래김, 청태김, 청각, 밥지어먹는 툷, 꼬시래기, 완도 미역 및 다시마, 매생이, 숙성홍어, 장죽, 가문어살, 건홍합, 멸치, 양태채, 장어포, 선물용 반건시, 보쌈 다시마, 미역귀분말, 밥툷, 밥다시마, 활철 추어탕, 감태, 감태김, 논우렁이, 가자미, 홍어무침, 갈치액젓, 멸치액젓, 곰피

**젓갈/반찬류:** 명란젓, 창란젓, 토하젓, 오징어젓, 조개젓, 참새우젓, 황석어젓, 갈치숙젓, 전어고추, 가자미 식혜, 벤멍이젓등과 양념젓, 무말랭이, 도라지무침, 명이나물, 더덕구이, 더덕무침, 3년 숙성 매실효소, 볶음 고추장(황태, 표고, 멸치), 고메 간장, 유자 간장, 매실 간장

**약재류/건강식품:** 도라지, 감초, 대추, 천궁, 작약, 결명자, 산수유, 개똥썩, 느릅나무, 당귀, 여성초, 아관문, 헛개나무, 겨우살이, 황기, 구기자, 홍화씨, 구절초, 신선초, 삼백초, 맥문동, 유근피, 둥글레, 오미자 등

**청정 완도군 특산품**

**이윤삼육오:** 해조장쾌한 완도다: 전복차우더크림, 매운 전복차우더 크림

**우성물산:** 완도바다생면 다시마국수, 완도전복다시마국수, 매콤비빔다시마국수, 다시마 생면

**완도사랑:** 전복해물볶음밥, 전복김치볶음밥, 전복카레볶음밥, 전복마늘볶음밥, 전참전복죽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 한마리 전복죽, 전복미역국, 자숙냉동전복(3미, 5미) 통살자숙전복살, 슬라이스자숙전복살, 통살활전복살, 꼬마전복

**완도맘:** 간편 곰피미역, 간편 무청시래기 **아들래:** 모링가 차, 모링가 소금, 강황소금 **대한물산:** 표고해물 다시떡, 멸치해물다시떡 **해성:** 광어죽, 매운 광어죽

**청산바다:** 자숙냉동전복(1kg), 꼬마전복장, 꽃새우, 건홍합, 천연다시떡, 디포리, 미역, 다시마, 곱창김, 김밥김, 미역귀, 밥다시마, 밥툷

**바다명가:** 완도미역, 중각미역, 돌각미역, 완도다시마, 재래김, 곱창김, 청태김, 감태김, 구운곱창김, 돌김, 김밥김, 파래김, 녹차자반볶음, 청각, 황태채, 각자반, 미역다시마분말, 밥툷, 미역귀, 미역귀분말, 염장미역, 곰피, 코시래기, 염장다시마, 보쌈다시마, 자른미역, 냉동매생이, 전복제리, 전복다시마카리멜, 툷카리멜, 문어포, 꽃새우, 해초모듬

\*약재류는 물론 모든 제품이 새롭게 입하, 판매됩니다.

\*일부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해주세요.



# 김행 “주식 파킹 논란 억울” 야당 “통정매매 공모 정황”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건희 여사 친분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발탁)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 문화계 모임으로 알려진 ‘월단회’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전 참석과 관련한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월

단회 회원도 아니고 같이 가서 (전시전을) 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 파킹’(제3자에게 맡겨놓음) 논란에도 공세를 집중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이거(주식) 좀 갖고 있어라’ 했다가 재매입한 것 아니냐”며 “남편 지인은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면 다시 사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통정매매를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정매매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며 “(매각 대상이)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위법 사항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런 주식 매각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

**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청문회**  
**유 후보자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야당 “사실상 위증” 여당 “정치공세”**



유인촌 김행

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뒤 백지 신탁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은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은 시누이와 지인에게 팔았다가 다시 매수해 ‘꼼수’ 매각 의혹을 받았다.

청문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 왜 불렀냐”며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에 문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느냐”고 따지자,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라”고 맞받았다. 이때 정 의원이 “야”라고 문 의원을 칭했고, 여야 간에 “많이 컸다” “조용히 해” 등의 고성 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유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문체부 장관 시

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MB정부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임종성 민주당 의원)며 압박했고, 여당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고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국감에서 취재진에게 “찍지 마 XX”라고 소리 지르는 동영상 야당이 재생하자 “(사진 찍지 말라는) 앞 내용은 말한 적 있지만, X로 자막 처리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욕설 의혹을 부인했다.

남수현·김다영·김준영 기자

## 박소희 “한·일 200% 가진 나, 자랑스러운 자이니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세계한인 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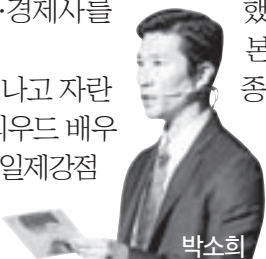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하와이 사랑수수밭과 중남미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자돈이 됐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경제사를 써내려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나고야에서 나고 자란 제일한국인 3세이자 할리우드 배우인 박소희씨가 답사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

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 둘째 아들로 출연했다. 그는 “미국·일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이니치(在日·재일동포의 일본 내 표현)의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릴 적 들던 제 할머니 얘기였다”며 “세계 할머니는 돌아가고 싶은 모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며 “자이니치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재외동포가 되겠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한글날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등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박소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전투표 D-1, 보수후보 단일화...우리공화당 강서구청장 후보 사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단일화에 나섰다.

5일 이 후보는 강서구 화곡역 앞에서 열린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함께 나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반드시 보수가 하나 돼서 승리해야 한다”고 후보 단일화를 알렸다.

이어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김태우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외쳤다.

이에 김 후보는 “용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는 결의가 생긴다”고 화답했다.

당초 이 후보 측은 단일화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양당 지도부 중재에 따라 사전투표(6~7일)를 하루 앞두고 보수진영 단일화가 이뤄졌다. 강서구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5일 강서구 방화동 모이타운 통합추진위 사무실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를 해주시라. 나라를 살리려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지를 독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족, 친구와 친지도 참여해달라.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6~7일 이틀 동안 강서구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20곳에서 이뤄진다. 본 투표는 평일인 오는 11일이다.

이 후보의 사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자유통합당 고영일(기호순) 등 6명으로 좁혀졌다.

사전투표에선 이 후보 기표란에 사퇴 사실이 표기되지만, 본 투표에선 사퇴 표시가 없다.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김홍범 기자

## 대통령실, 공직 후보자 검증하는 질문에 ‘학폭’ ‘마약’ 추가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서에 학교폭력과 마약 등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5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공개했다. 질문서에는 공직 후보자로 걸맞은 행위나 자질에 관해 묻는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이번에 포함된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의 첫 물음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식 등의 학폭 관련 문제였다.

최근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와 지난 2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의 아들 학폭 문제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학폭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파동림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적 발언과 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

10. 공직자로서의 품위

학교폭력		예	아니오	조사 확인요소
1	학폭(학폭, 사이버폭력 등)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2	본 “예”라고 답변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조사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3	11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만 작성 (문제제기된 학교폭력비 2004.7.28 이전 시연인 경우) 문제제기된 학교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알람해 주십시오.			

물의 오·남용 관련 문제도 담았다. 특히 질문서에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했다.

임성빈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부동산 최고의 권위!

대표 정희수  
703-477-3114

#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Principal Broker  
 씨리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Equal Housing Opportunity  
 REALTOR



# “한국 의대 쏠림 문제… 사회 기능 위해 다양한 지식인 필요”

인공지능(AI)이 급부상하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두 석학이 만났다. 오세정(70) 전 서울대 총장과 마이크 매기(52) 미네르바대학 총장. ‘2023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대회가 열린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5일 만난 두 석학은 “대학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왼쪽)과 마이크 매기 미네르바대학 총장이 5일 전남남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열린 ‘2023 김대중 평화회의’에 앞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두 사람은 “대학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중호 기자

-대학의 역할·책임은 미래에도 유효한가.  
▶마이크 매기 미네르바대학 총장(이하 매기)=“대학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의면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AI의 윤리적 문제 등이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하 오)=“단순한 지식 전달은 이제 대학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매기=“우리 학교엔 100개국에서 온 재학생이 있는데, 미국인이 15% 미만이고 한국인은 5% 정도다. 글로벌

다양성은 그 자체로 학습경험이 된다.”(※2014년 문을 연 미네르바대학은 캠퍼스가 없는 대학으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매학기 샌프란시스코·서울·베를린·런던·타이베이 등지를 돌아다니는 독특한

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은.  
▶매기=“우리는 1학년 때 학제 간 융합 교육을 한다. 철학을 배우며 얻은 지식을 인공지능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식이다. 학제 간 문제 해결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 학교가 높은 창업률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졸업생 중 약 12%가 창업을 한다.”

▶오=“한국 대학은 전공 간의 장벽이 상당히 높다. 매기 총장의 말처럼 다른 전공을 배울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

-한국 저출산 문제도 대학 위기 요인이다.  
▶매기=“전 세계 많은 국가가 조만간 직면하게 될 문제지만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대학과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데.  
▶매기=“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오=“학문적 연구에 매우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은 교수가 가르치는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선 ‘의대 열풍’ 문제도 있다.  
▶오=“한국에선 부모의 조언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안정적이고 고임금 직업과 연관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탐구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의 입시를 바꿔야 한다.”

▶매기=“미네르바대학의 교육 목표가 학생들이 편협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세계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모든 학생에게 이런 인식을 형성시킬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가람 기자

## 마스크 벗자 12년 만에 늘었다…이 ‘옛날 병’ 더 위험한 이유

매년 감소하던 결핵 환자 수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지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결핵 예산은 전년 대비 4분의 1가량 삭감돼, 결핵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3분기 결핵 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자 1만5451명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1만5432명)보다 0.1%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결핵 환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질병청의 예상이다. 국내 결핵 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효과 등으로 2011년 최대치(5만491명)를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7.9%씩 감소해왔다.

올해 1~3분기 전체 결핵 환자 수가 소폭(19명 증가)으로 늘어난 데에는 고령층 환자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지난해 8520명에서 올해 8950명으로 5.1% 늘어났다. 전체 환자 1만5451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57.9%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환자가 지난해 2899명에서 올해 3099명으로 6.9%, 80대 이상 환자는 3946명에서 4255명으로 7.8% 각각 늘었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환자가 모두 줄었다.

국내 결핵 환자가 증가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등이 꼽힌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65세 이상이 갖는 모임 빈도가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의료기관 검사·진단이 줄었다가 다시 정상화된 것도 환자 증가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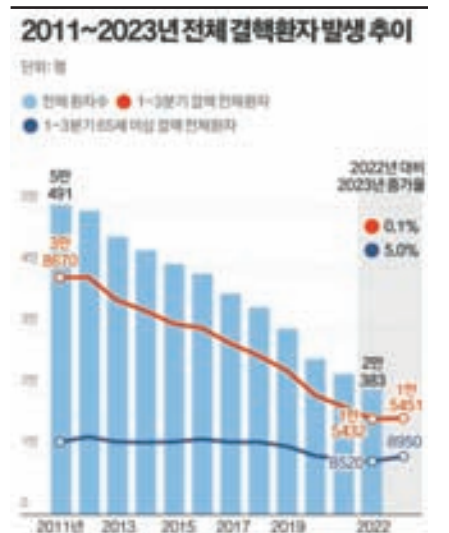
유로 꼽힌다. 이성순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은 노인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 환자가 늘어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며 “잠복 결핵 감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전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30%가 잠복 결핵 감염자로 추정된다.

결핵은 흔히 잊힌 병으로 인식되지만, 현재 진행형인 질병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4명으로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코로나19를 뺀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21년 1430명)인 병이기도 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결핵은 성인용 백신이 아직 없고, 치료 기간이 보통 6개월~2년으로

긴 만큼 위험성이 크다. 국가가 5년 단위로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계획(2023~2027년)’에서 결핵 발생률을 2027년까지 20명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결핵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4.3%(457억원→346억원) 감소했다. 예산 감축으로 결핵 예방·진단·치료 사업 16개 중 15개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됐다. 올해 착수한 잠복결핵검진 사업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결핵 퇴치를 위해 다년간 펼친 국가적 노력이 퇴행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장인 박재석 단국대 의대 교수는 “미국이 과거 결핵 관리사업 규모를 줄였다가 1985~1992년 환자 5만2000명이 추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예



산을 선불리 줄었다가 결핵 환자가 다시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은 “결핵은 노인의 잠복 결핵 감염률이 높아 찾아가는 검진 등이 필요한데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이대로라면 2027년 결핵 조기 종식이라는 국제사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혜선 기자

## ‘투신 교교생 학폭 은폐’ 양천구 고교·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지난해 열일곱살 고등학생이 투신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학교와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의 학생 7명은 검찰에 넘겼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한 고

등학교와 서울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 학교 학생 4명을 공동폭행 혐의, 3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

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 피해자 A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아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괴롭힘을 당한 이튿날 거주지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 뒤 A군 부모의 요청으로 학교는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시기 A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가해진 정황을 발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A군의 유족은 당시 학폭위 담당 교사 등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은폐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성빈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메우다’와 ‘메꾸다’**

어떤 장소를 가득 채우다는 의미로 ‘메우다’ 대신 ‘메꾸다’를 써도 될까? “광장을 가득 메꾼 인파”와 같이 표현하면 안 된다. ‘메운’이라고 해야 바르다. “공연장을 꽉 메운 팬들의 환호”도 ‘메꾼’으로 바꿀 수 없다. ‘메꾸다’가 표준말이 아니기 때문일까? 과거에는 그랬다. ‘메우다’만 사전에 올라 있었으나 언어 현실을 반영해 2011년 8월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됐다. 표준말이 됐지만 ‘메우다’와 뜻이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메꾸다’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흙으로 구덩이를 메꾸라” “빈틈없이 공란을 메꾸느라 혼났다”처럼 풀리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를 ‘구덩이를 메워라’ ‘공란을 메우느라’로 바꿔도 된다.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는 의미도 있다. “영화관에서 빈 시간을 메꿨다” “무료한 시간을 메꾸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와 같이 쓰인다. 이 역시 ‘빈 시간을 메웠다’ ‘시간을 메우려고’처럼 표현할 수 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고 할 때도 ‘메꾸다’를 사용한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애썼다” “업체들이 손실을 메꾸려고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못 거뒀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메우기 위해’ ‘메꾸고’로 바뀌고 무방하다.

어떤 장소를 가득 채운다고 표현할 때만 ‘메꾸다’가 아닌 ‘메우다’를 쓰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다정한 서재**

**타샤의 집**



클로리 칼럼니스트

지난주, 친구가 책 몇 권을 줬다. 밝고 따스한 이야기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벗을 위한 배려였다. 표지에는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와 집안 소품이 있었다. 자급자족 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사람들 이야기인가 싶어 책 머리말을 들춰봤다.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집 안과 정원을 소개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는 동안 감탄이 절로 나왔고 중세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아득함이 있었다.

책 이름은 ‘타샤의 집(Tasha Tudor's Heirloom Crafts)’. 미국 버몬트주 시골에서 동화 같은 삶을 산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 화가 타샤 튜더의 이야기이다. 처세와 실용서가 넘실거리는 독서 시장에 그녀의 책은 순수함 그 자체다.

그녀의 집은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 같다. 숲속 물푸레나무로 만든 바구니, 손바느질한 19세기식 드레스, 직접 키운 아마로 짠 리넨, 초지의 미역취를 염료로 물들인 실, 그 실로 베틀질해서 만든 체크무늬 셔츠, 허브로 만든 핸드크림, 양모로 짠 장갑과 솔 등 추억이 깃든 물건들로 가득하다. 책은 타샤의 집과 그곳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핸드메이드 라이프를 글과 사진으로 담은 에세이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 타샤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색다른 울림을 준다는 점이다. 1915년에 태어나 9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메이플라워호에서 막 내린 듯한 청교도적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았다.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 가꾼 30만평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주인공의 삶의 철학을 볼 수 있다.

생활은 사부작사부작 매일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핸드메이드 라이프이다. 타샤는 진귀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지금은 잊혀진 과거의 방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든다. 손수 천

을 짜서 옷을 짓고, 장작 스토브로 비스킷을 구우며, 염소젖을 짜 직접 버터와 치즈를 만든다. 가을에는 한 시간씩 뜨거운 냄비 위에 허리를 굽힌 채 일 년 동안 쓸 양초를 만든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괴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 같다.

그렇다고 그냥 뚝만 부지런한 노파가 아니다.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공연하며, 스스로 키워 말린 허브를 끓여 오후의 티타임을 즐긴다. 본업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쉬지 않아 끊임없이 새로운 ‘소공녀’를 그려낸다. 연못에 작은 배를 띄우며 오후의 햇살을 즐기기도 한다. 손발은 거칠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해도 그녀의 생활에는 평화가 느껴진다.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된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뒤지고 다닌다. 더 고급인 것, 더 편리한 것, 더 최

신인 것들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도 특별한 날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주겠다며 털실로 목도리를 뜨고, 공들여 반죽해 구운 쿠키를 선물한다. 한뼘 한뼘 엮은 비즈 가방을 만들어 집짓 자랑스럽게 메고 다닌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예술품임을 강조하면서, 이렇듯 우리는 공장제품에 익숙하지만 본능은 자연을 재료로 손수 만든 것들에 끌린다. 그렇게 만든 물건에는 만든 이의 따스한 숨결이 녹아 있기 때문이리라.

지금 인생에서 시련을 맞닥뜨렸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샤의 집으로 가보라. 소박하게 누리고 나누는 그녀의 삶에서 편안함 위로를 느낄 것이다. 아흔들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드는 그에게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원 일과 집안 일, 그림 그리기 등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영혼에 우울함이나 외로움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 자부하는 타샤 튜더의 낙천성은 부지런함으로부터 오는 듯하다. 육체의 부지런함은 고요한 물과 같은 정신의 평화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타샤는 ‘게으른 손은 악마의 놀이터가 된다’고 말한다. 그저 손에 일감을 들고 있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는 그녀는 한결같이 맑은 소녀 같은 모습이었다. 가을이 질어지면 타샤의 집이 더욱 그리워질지 모르겠다. 손으로 만드는 기쁨이 충만한 그곳, 염소젖으로 만든 버터를 고풍스러운 무늬의 목각 틀에 찍어 상에 올리는 매혹적인 그녀를 만나고 싶다.

원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법이다. 또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룬다. 정원의 매마른 허브는 겨울에 염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염소는 손님에게 대접할 치즈를 만드는 우유를 대준다. 타샤의 생활은 매사가 보기 좋게 어우러진다. - p. 14

**문장으로 읽는 책**

**목소리 순례**



그때, 눈은 내리고 쌓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인 순간,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무한한 이야기였다. 목소리가 내린다. 계속 내린다. ~목소리를 뒤집어쓴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소리를, 무한히 존재하는 하나하나를 그대로 뒤집어쓴다.

사이토 하루미치 ‘목소리 순례’, 저자는 청각장애인 사진가다. 스무살의 겨울 보청기를 빼고 핫카이도를 여행하다가 아무도 없는 설경 속에서 처음 ‘고요의 울음’을 듣게 된 순간을 저렇게 표현했다. “고요가 울었다.” 저자는 수어를 즐겨 씀다. “자연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찍는 풍경사진처럼 그 사람의 손뿐 아니라 존재까지듬뿍 녹여서” 찍는다.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을 잘 안다는 착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하는 책이다. 그의 말대로 말이란 귀하디귀한 것. “진짜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로 가득하다. 진짜 말은, 오래 시간을 들여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꽃을 피운다. 진짜 말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 되어 마음에 닿는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 40년 현역 감독 정지영 한국사의 산증인이 되다



정지영 감독은 '하얀전쟁'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등 수상 경력이 많음에도 아직 최고의 영화를 만들지 못했노라 고백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1980년대엔 한국영화가 수준 떨어진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요즘은 할리우드보다 더 재밌다는 관객이 있잖아요. 검열이 없어지고 시대가 바뀌며 생긴 엄청난 변화죠. 제약하지 않고 마음껏 상상하게 두니까, 국제적 관심까지 얻게 됐죠.”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지영(77) 감독은 한국영화의 최근 글로벌 인기 요인을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부터 지금껏 상업영화 시장에서 활동해온 거의 유일한 현역 감독이다. 40주년 기념 회고전이 지난달 서울에 이어 오는 18일 개막하는 영국 런던아시아영화제에서 열린다. 지난달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영화에 데모 장면도 찍을 수 없었던” 유신정권 시절 김수용 감독 연출부로 충무로에 입성했고, 치정 스릴러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1983)로 감독 데뷔했다. 1990년대 이념을 넘어선 전쟁 대작으로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빨치산을 다룬 ‘남부군’(1990)이 대표작이다. 베트남전 상흔을 현지 울로케로 새긴 ‘하얀 전쟁’(1992)으로 도쿄국제영화제 그랑프리·감독상을 받았다.

시대 참여적 주제의식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실화를 범정 드라마로 옮긴 ‘부러진 화살’(2011), 론스타 게이트를 다룬 ‘블랙머니’(2019) 등이다. ‘직지코드’(2017), ‘천안함프로젝트’(2013) 등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다. 6일에는 강도 살해범으로 몰린 청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실화를 극화한 17번째 극영화 연출작 ‘소년들이’ 개봉한다. 그는 “정지영의 욕구는 사회 문제나 우리의 삶을 한 개인이 아닌, 환경·사회·정치가 어우러진 형태로 다루는 것이다. 사랑의 관념조차 옛날과 다르지 않으나”며 “다만 관객한테 외면받는 영화는 원치 않는다. 내가 아티스트가 아

나라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첫 회고전 소감은.  
“작년 배장호 감독 데뷔 40주년 특별전 자리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내가 회고전을?’ 그랬다. 은퇴 후에 하는 건데, 현역이니까. 쑥스럽기도 하다.”  
—회고전에 초기작이 많지 않은데(회고전에선 ‘남부군’ ‘하얀전쟁’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2012), ‘블랙머니’ 등 8편이 상영된다.)  
“디지털화가 안 돼 포함시키지 못했다. ‘남부군’ 전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직접 각본을 쓴 초기 멜로에도 사회적 화두를 녹였다.  
“‘거리의 악사’(1987)에 운동권 학생, 재개발 문제를 담았다. 검열을 피해 썼는데도 10분가량 잘렸다.

‘추억의 빛’(1984)은 70~80년대 데모에 휘둘리지 않는 젊은이들의 방향을 그렸다. 거리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정치는 분명 영향을 미친다.”

정 감독은 확장 시절 문학을 통해 사회와 세계를 보는 눈을 단련했다고 했다. 단편소설 ‘오발탄’을 유현목 감독의 영화로 다시 본 뒤 영화 연출에 뜻을 품게 됐다. 필모그래피의 전환점은 시대적 급기에 도전한 ‘남부군’이다. 평균 제작비 2억원이던 시절, 14억원을 투입했다. 실패하면 영화관을 떠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관객 37만이 그를 살렸다. ‘장군의 아들’에 이어 그해 흥행 2위였다. ‘하얀전쟁’은 베트남전의 본질을 과감히 물으며 서울 15만 관객을 동원했다. ‘까’(1998) 이후 13년이나 벌어진 공백은 ‘부러진 화살’로 뛰어넘었다. 전국 342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부터 스크린쿼터·영화법 개정 등 한국영화계 이슈의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행동과였다. 88년, 할리우드 직배사와 스크린쿼터 폐지에 반대해 미국 배급사 UPI 영화 ‘위험한 정사’ 상영 극장에 뱀을 쫓아도 유명했다.

—40년 ‘현역’ 감독의 책임감도 있을까.  
“책임은 아니고 부담은 있다. 일관되게 사회 문제를 끌고와서 관객과 소통하고자 했다.”

—한국영화 흥행 침체기인데.  
“기존 흥행 매뉴얼만 따르려는 영화에 관객이 싫증 난 것 같다. 대중영화도 안 봤던 걸 보여줘야 한다.”

자신도 부단히 연구 중이다. 차기작으로 제주 4·3사건 소재 작품과 김구 암살 사건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40년을 묻자, 그는 웃었다. “40년은 모르겠고, 4년은 자신 있어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깐요.” 나원정기자

## 부산국제영화제 열흘 대장정 시작... 개막작은 ‘한국이 싫어서’

배우 송강호가 호스트로 손님 맞이에 나서고 배우 박은빈이 사상 첫 개막식 단독 사회를 맡았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흘간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용관 전 이사장,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이 내홍으로 잇따라 사퇴하며 생긴 초유의 공백을 스타 게스트들이 메웠다.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 강승아 부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 대행 맡았다.



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렸다. 호스트인 배우 송강호가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올해 영화제 포문을 연 개막작은 영화 ‘한국이 싫어서’(감독 장건재)다.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토대로, 28살 회사원 게나(고아성)가 뉴질랜드로 혈혈단신 이민간 여정을 담았다. 매일 인천에서 서울 강남역 출퇴근길에 시달려도 게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경쟁력 없는’ 학벌·집안 배경을 뒤로 한 채 오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탈(脫)조선’을 감행한 이이다.

4일 개막식 전 시사 후 간담회에서 한국의 어두운 면을 담은 영화를 왜 개막작에 선정했느냐는 외신 질문이 거듭 나왔다. 이에 남 집행위원장 대행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진 어려운 점을 잘 표현한 제목”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이 싫어서’의 주연 고아성은 지난달 갑작스레 천주골 골절 부상을 당해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은빈과 개막식 공동 사회로 예정됐던 배우 이제훈도 1일 허혈성 대장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 불참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영화제에선 초청작 69개국 209편이 상영된다. 경쟁 부문 ‘뉴커런츠’ 섹션에선 한국영화 ‘그 여름날의 거짓말’, 관동대지

진 당시 조선인 학살 역사를 그린 일본 영화 ‘1923년 9월’ 등 10편이 경합을 벌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뮌 베송 등 해외 거장 감독도 신작을 들고 찾아온다. 재미교포 영화인들을 조명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특별전을 통해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존 조와 영화감독 저스틴 진, 정이삭 등도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중화권 ‘빅스타’ 배우 판빙빙도 한국 배우 이주영과 호흡을 맞춘 영화 ‘녹야’로 처음 부산영화제 관객을 만



박은빈

났다. 개막식 무대는 올초 별세한 배우 고(故) 윤정희의 추모 영상으로 시작됐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딸 백진희씨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다. 윤정희의 올해 한국영화수상자 수상 무대엔 이창동 감독이 시상자로 올랐다. 상을 대리 수상한 백진희씨는 “영화 ‘시’와 여러분의 애정이 멀리 있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했으리라 믿는다”고 불어로 소감을 남겼다. 올초 작고한 일본 영화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추모 상영도 영화제 기간 마련됐다.

홍콩 영화 전성기를 풍미한 배우 저우룬파(주윤발)는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신작 ‘월모어 쉐츠’와 함께 14년 만에 내한해 이날 개막식 무대에 올랐다. 시상상을 맡은 송강호는 “진짜 스크린 속 영웅, 영화계 큰 형님이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배우”라며 그를 소개했다. 배우 류덕화, 감독 이안·지아장카·박찬욱 등의 축하 영상에 이어 무대에 오른 저우룬파는 “올해가 배우 데뷔 50년 되는 해다. 한국 팬, 긴 시간 응원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 관객들을 담은 ‘셀카를 무대 위에서 찍으며 한국말로 “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김치~!” 하기도 했다.

부산=나원정 기자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들랜드 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박스치료
- 근육 통증치료
- 관절 / 근육이완치료
-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시 설**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갈림길... 출구는 규제개혁뿐**

대한상의가 어제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 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호소다. 신산업·노동 등 5개 분야 97건으로, 여기엔 드론 등 무인 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범위를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고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총 역시 규제혁신 관련 입법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255건의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기업 활동을 지원 하는 법안은 23건(9%)

에 불과했다. 앞서 상의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분석한 자료에서도 21대 국회는 개인

**개원부터 기업 규제 법안들 쏟아내 온 21대 국회 기업 호소 귀 기울여 규제혁신 법안 처리 나서야**

3개월 만에 기업을 옥죄는 부담 법안을 284건이나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대 국회보다 40% 더 많은 수치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킬러규제 혁파를 약속하면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킬러규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어제 기업 현장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준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쉬는 날 온라인 배송을 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발의

된 지 2~3년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적지 않다.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이라도 우선 입법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책상머리 규제는 언제나 문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가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는 일이 허다했다. '타다금지법'을 통해 이미 경험했듯이 시대에 뒤쳐진 규제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땐 규제 하나하나가 전부 기업의 목을 옥죄는 울가미가 되고 있다. 가계, 기업의 빛이 급증하는 와중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터에 규제는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성장 국가 일본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의 고착화로 갈 것이나, 아니면 재도약을 이룰 것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규제개혁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선 여야가 힘을 합쳐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온 21대 국회가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길이다.

**미국인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이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위협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49%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공감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찬성했다.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보수층 내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CCGA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점점 더 당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의 미국 정치는 162년 전의 남북전쟁 시절을 연상시

킬 정도로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강한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던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에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여론이 참전 반대로 기운다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더군다나 한·미 동맹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미국은 국민 여론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과 장관 레벨의 한·미 고위층 양자회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의회나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 언론을 상대로 한 외교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친한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도 함께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정·관·재계 등을 상대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안보까지 직접 위협한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을 지키는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책 읽지 말라는 정부인가**



신준봉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정부는 책 읽지 말라는 정부 아니냐는 거다.

문학나눔 사업은 쪼그라든다. 이미 출간된 사·소설 등 문학책 가운데 '양질'을 선정해 종당 850만원어치씩 정부가 사주는 사업이다. 작가로서는 문학성을 '공인'받는 효과가 난다. 출판사에 면이 서고, 그렇게 되면 후속작 출간이 수월해진다. 이 사업 예산이 20억원 줄어든다. 한 출판인은 "금액의 크기보다 상징적인 타격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할 말은 있어 보인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평소보다 효율성을 신경 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에 걸렸거나 저평가받은 사업을 가지쳐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 직접 지원보다 시스템 개선 쪽의 방향 변화로 바뀔다"고 했다. 가령 중소출판사 성장을 돕는 사업을 신설해 30억원을 배정

최근 신문사 편집국에 배달된 '출판문화' 9월호는 '지식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감축안을 비판하는 글들을 묶었다. 출판문화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발행하는 월간지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 지원금 정산 문제 등을 두고 불과 두어 달 전까지 정부와 한껏 대립각을 세웠던 출판단체다. 감정의 양금이 없진 않겠지만, 출협이 마침 잘 걸렸다는 심정만으로 특집을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다. 소설가 고(故) 박완서 선생의 딸인 호원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신문 지면에서 볼 수 없는 긴 호흡의 글로 R&D 삭감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동진 계원예대 교수는 '문과'로 된 불통을 전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일률적으로 30% 줄어들게 생겼다는 것이다.

결이 살짝 다르지만, 목직한 인문서를 선보여 온 도서출판 길의 이승우 기획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적 인프라 구조 자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셈"이라고 요즘 인문학술 출판계가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학자들은 임용·승진에 매몰돼 대중적으로 의미 있는 학술서를 쓰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언론계가 학술기사를 소홀히 한 탓에 그나마 탄탄한 교수 필자가 '발견'되지 못하는 사이, 출판계의 인문학술 전문 편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R&D 예산과 인문학술 출판만 문제인 걸까. '출판 일반'으로 시야를 넓혀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역시 정부의 내년 예산안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출판산업 분야 내년 예산이 크게 바뀐다. 신설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이라는, 올해 59억원이 책정된 계정 자체가 내년에는 사라진다. 어린이를 위한 북스타트 등 예산이 없어지는 11개 독서 진흥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책임은 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상임이사는 "15년째 독서 진흥에 매달리고 있는데, 역대급 예산안 변화다. 광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현

**독서 진흥 등 내년 예산 큰 폭 줄여  
거액 R&D 예산 권위 초라한 수준  
'출판=사양산업' 인상 주지 말아야**

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는 법 배우는 일을 돕겠다는 얘기다. 토 달기 어려운 논리다.

하지만 문체부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달라진다. K콘텐츠 펀드 출자액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3600억원이다.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 등 관련 예산은 78% 늘려 178억원을 책정했다. 빠르게 돈 될 수 있는 사업이면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 아닌가. 반면에 방안 운영, 낭비, 카르텔 요소를 따졌다면 2400억원을 삭감했다. 수조원 단위의 R&D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인, 쪼그라든 출판산업 예산은 말하자면 낭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책도 결국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사줘야 한다는 발상(문학나눔·세종도서)은 언뜻 직관에 반한다. 하지만 책의 공공성을 떠올리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한 출판인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출판은 사양산업, 책은 올드한 매체니까 지원을 줄인다는 신호로 독서 인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문화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했다. 문화디렉터

**중앙일보**

구독신청: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a href="http://jfe.joongang.co.kr">http://jfe.joongang.co.kr</a>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a href="http://ad.joongang.co.kr">http://ad.joongang.co.kr</a>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a href="mailto:sarangbang@joongang.co.kr">sarangbang@joongang.co.kr</a>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세진사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lee@jaelaw.com](mailto: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월드뱅크카드서비스]

#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 W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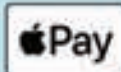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http://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http://www.worldbankcard.com)







**MARKET**  
INTERNATIONAL FOOD  
432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 703-712-7089



**WEEKLY SALE**  
**10/6-10/12/2023**  
할인 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직원 모집 | IT, RECEIVING & DELIVERY | 이력서 접수 : accounting@kmarketusa.com

**PRODUCE**

**후지사과 BOX** FUJI APPLE GIFT BOX 3 DAYS ONLY (금,토,일) **15.99** BOX

**한국 배 BOX** KOREAN PEAR 3 DAYS ONLY (금,토,일) **29.99** BOX (7-8PCS)

**중국가지** CHINESE EGGPLANT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생강** GINGER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새송이버섯** KING OYSTER MUSHROOM 3 DAYS ONLY (금,토,일) **2.99** LB

**한국 고구마** KOREAN YAM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우엉** GOBO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한국 배** KOREAN PEAR 3 DAYS ONLY (금,토,일) **9.99** PACK (3PCS)

**파파야** YELLOW PAPAYA 3 DAYS ONLY (금,토,일) **0.89** LB

**아보카도** AVOCADO 3 DAYS ONLY (금,토,일) **1.29** EA

**무** RADISH 3 DAYS ONLY (금,토,일) **16.99** BOX

**딸기 (Driscoll's)** STRAWBERRIES 3 DAYS ONLY (금,토,일) **1.99** EA 2LB

**타이완 시금치** TAIWAN SPINACH 3 DAYS ONLY (금,토,일) **1.49** LB

**풀무원 순두부** PULMUONE SOON TOFU 3 DAYS ONLY (금,토,일) **1.29** EA

**꽃감** DRIED PERSIMMON 3 DAYS ONLY (금,토,일) **9.99** EA

**화이트 드라곤** WHITE DRAGON 3 DAYS ONLY (금,토,일) **2.99** LB

**피피안 호박** PIPIAN SQUASH 3 DAYS ONLY (금,토,일) **0.89** LB

**고소하코두부** PULMUONE TOFU (생식용, 부침용, 찌개용) 3 DAYS ONLY (금,토,일) **1.49** EA

**\$50 이상 구매시**  
\*박스, 쌀, 도매제품 금액은 포함 되지 않으며,  
기구당 1BOX 한정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SEAFOOD**

**고등어** MACKEREL **1.99** LB

**오징어** SQUID **3.49** LB

**암게** BLUE CRAB FEMALE **1.99** LB

**광어** FLUKE **3.99** LB

**냉동 반간홍합** FROZEN GREEN SHELL MUSSELS **11.99** BOX 2LB

**MEAT**

**CHOICE LA 갈비** CHOICE BEEF LA SHORT RIB **13.99** LB

**등심스테이크** BEEF BONE-LESS RIBEYE STEAK **9.99** LB

**뼈있는 사태** BEEF BONE-IN SHANK **3.99** LB

**냉동 돼지목살 불고기 / 패밀리팩** FROZEN PORK BULGOGI / FAMILY PACK **3.99** LB

**닭다리살/패밀리팩** CHICKEN LEG QUARTER / FAMILY PACK **0.99** LB

**GROCERY**

**자연나라 간장버터치즈 주먹밥** SOY SAUCE BUTTER CHEESE RICE BALL 400G **7.99** EA

**김치치즈 주먹밥** KIMCHI CHEESE RICE BALL 400G **6.99** EA

**참치마요 주먹밥** TUNA MAYO RICE BALL 400G **6.99** EA

**광천김** SEASONED SEAWEED 8 + 8 **4.99** EA

**농심 신라면** SHIN RANEN 4PK **4.99** EA

**농심 신라면 블랙** SHIN BLACK 4PK **10.99** EA

**서바나 물방울 츄러스 보성녹차맛** CHURROS GREEN TEA 410G **7.99** EA

**동원 양반 발단팥죽** RICE PORRIDGE SWEET RED BEAN 420G **4.99** EA

**기꼬만 저염간장** LESS SODIUM SOY SAUCE 1.89L **12.99** EA

**기꼬만 간장** PURE SOY SAUCE 1.89L **10.99** EA

**농심 신라면 블랙** SHIN BLACK 4PK **10.99** EA

**C NATURE 꿀 생강차** HONEY GINGER TEA 2.2LB **8.99** EA

**서울장수 월매 막걸리** WALLEE MAKKOLLI 1L **5.49** EA

**가도야 참기름** PURE SESAME OIL 11 FL.OZ **7.99** EA

**샘표 조선간장** NATURALLY BREWED SOY SAUCE 930ML **6.99** EA

**삼육 검은콩 땅콩, 잣, 호두와 아몬드 두유** SOY MILK W/PEANUT, WALNUT, ALMOND AND BLACK BEAN 24PK **22.99** EA

**아워홈 꼬치사각어묵** FISH CAKE SKEWERS 640G **8.99** EA

**KABUTO 소바누들** SOBA NOODLE 800G **3.99** EA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DRIED SEAWEED 150G **7.49** EA

**더힐센 민물장어 진액** KOREAN FRESHWATER EEL EXTRACT **39.99** EA

**침향 진생 베리 진액** ALOEO WOOD WITH GINSENG BERRY EXTRACT **24.99** EA

**6년근 고려 흑홍삼 진액** 6YEARS KOREAN BLACK GINSENG EXTRACT **24.99** EA

**6년근 홍삼담은 생녹용** DEER ANTLER WITH RED GINSENG **24.99** EA

**실내화 (남/여)** FABRIC SLIPPER (MAN & WOMAN) **9.99** EA

**키친아트 사각 구이팬** BBQ GRILL **19.99** EA

**HOUSEWARES**

**푸드코트**  
테넌트 입점문의  
(703) 712-7089  
K MARKET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 and description.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Discount products may sell out early.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week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Friday, October 6, 2023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395번 국도, 서둘러 가는 황금빛 가을

### 캘리포니아 단풍 여행

매년 10월이 되면 캘리포니아 시에라 산맥의 색이 변하기 시작한다. 395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동부 시에라 남단의 빅파인에서 비숍, 매모스 레이크스, 브릿지포트 그리고 레이크 타호까지 10월 한 달간 가을 단풍으로 물결친다.  
단풍이 드는 나무로는 아스펜, 코튼우드, 윌로우 등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단풍은 아스펜(사시나무)이 주종이다. 내리쬐는 햇살을 맞으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스펜 숲의 황홀한 분위기는 경험한 사람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아스펜은 고도 8000피트(2500m)에서 1만피트(3000m) 사이의 고산의 시냇가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단풍은 395번 국도를 따라 비숍에서 브릿지포트까지 가장 멋진 아스펜 행렬이 펼쳐진다. 그가

운데 다음 장소들은 빼놓을 수 없는 가을 단풍의 명소들이다.

**1. 비숍**  
아스펜 단풍의 보고로 알려진 비숍은 168번 국도 옆 비숍 크릭으로 알려진 냇가를 따라 노란색으로 물든다. 사우스레이크, 사브리나 레이크, 노스레이크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가을 단풍의 낭만을 느껴 볼 수 있다. 먼저 사브리나 레이크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스펜델이란 마을이 있다. 아스펜 숲속에 조그마한 호수와 함께 유럽풍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 마을이 온통 노란색 물결이다.  
이곳에 있는 카디널 리조트에서 카페 음식을 맛보거나 시골풍의 캐빈을 빌려 아스펜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  
단풍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들어 내려온다. 비숍 크릭에서 가장 높은 곳인 노스레이크는 단풍이 일찍 물들었다가 일찍 지는데 이곳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 피크이다.  
하이 시에라의 준봉 아래편에 조용히 자리잡은 사브리나 레이크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자랑한다.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사우스레이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가장 풍성한 아스펜 단풍을 볼 수 있다. 이쪽에는 여러 곳의 캠핑장과 리조트가 있다. 특히 포 제프리 캠핑장과 테이블 마운틴 그룹 캠핑장에 아스펜 물결이 넘쳐난다. 그리고 옛 서부시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파처스 리조트에도 가을 단풍 물결이 물씬 풍긴다. 사우스레이크의 단풍 시즌은 10월 초에서 중순이다.  
아스펜 숲에서 캠핑을 원한다면 10월 말까지 개장하는 포 제프리 캠핑장을 권한다. 샛노란 아스펜 물결 속에 눈부신 햇살이 스며든 캠핑장은 너무나 낭만적이다. 수세식 화장실이 완비되어있고 옆에 흐르는 시내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도 있다. 단지 고도가 높은 곳이어서 10월에는 아침

저녁으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므로 파스 한 침낭과 튼튼한 텐트가 필수적이다.  
동계 캠핑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대가 낮은 비숍 시내에서 캠핑하는 것을 권한다. 비숍 시내에 골프장 옆에 위치한 브라운 캠프장은 잔디 위에서 캠핑 가능하며 샤워와 수세식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다.  
비숍에는 많은 호텔이 있으며 그중에서 크릭사이드 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숍 시내에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이 많은데 더치스타일로 치장을 한 유명한 빵집 에릭 샷츠(Erik Schatz)는 100년 넘게 운영중인 이 지역의 명소이다. 그리고 빵집 건너편의 텍사스 바비큐도 잘 알려진 맛집이다.

**2. 브릿지포트**  
비숍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의 브릿지포트는 몇 개의 주유소가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멋진 아스펜 숲이 여럿 있다. 브릿지포트 인근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단풍명소는 로브텔 레이크 로드(Lobdell Lake Road)이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산등성이에 노란 아스펜 군락들을 목격할 수 있다.  
아스펜 숲 속으로 들어서면 황금빛 물결의 아스펜이 주위를 가득 메운다. 바람에 흔들리며 찰랑거리는 수많은 황금 잎사귀들을 보노라면 완전 별세상에 와있는 기분이 든다.  
산꼭대기에는 로브텔 호수가 있으나 아래편 단풍숲이 메인 포인트이다. 도로가 험할 수 있으므로 4륜 구동이 아니라면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김인호 여행작가  
▶ 2면 '황금빛 가을'으로 이어집니다



황금빛 아스펜 단풍으로 물든 사우스레이크 로드.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스티븐 커티스 Steven Curtis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scurti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e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rowe@rowepllc.com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sh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abush@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 변호사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국인 사무  
703-887-1037  
www.rowepllc.com



# 불심으로 쌓은 북한산성 정문, 의상·원효대사가 지킨다

(대서문) (의상봉) (원효봉)

승려가 지휘해, 승려들이 만들었다. 둘레 12.7km, 내부 면적 6.2km<sup>2</sup>의 거대한 구조물. 한 해 탐방객 수백만 명을 끌어당기는 구심력, 북한산성이다. 그 산성을 이고 있는 북한산을 찾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의 북한산은 크고 작은 사찰 100여 곳이 내건 연등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왕도 지나갔고, 대통령도 드나든 문. 대서문은 북한산성의 정문이다. 속종은 어린 세자였던 영조를 데리고(1712년), 영조는 다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와 함께 북한산성을 찾았다(1772년). 박현욱 경기문화재단 선임연구원은 “3대에 걸친 왕들이 북한산성을 찾았는데, 속종만 정문인 대서문을 이용했다”며 “영조가 1760년에 북한산성을 찾았을 때는 대서문을, 1772년에는 대남문을 입구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성입구에서 대서문을 지나 담방로를 ‘속종의 길’로 부른다.



1 북한산 원효봉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산객들. 원효봉과 맞은편 의상봉은 북한산성 정문 대서문(동그라미 점선)을 지킨다는 해석이 있다. 2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실타르타(석가모니)를 표현한 불상. 3 북한산 도선사에서 법고를 두드리는 승려. 4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선사 대웅전에 걸린 연등. 김홍준 기자

## 북한산 한 해 탐방객 600~700만명

속종은 승려 성능(聖能)을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승군 최고직)에 임명해 북한산성을 짓게 했다. 삼국시대부터 뼈대를 갖춰던 산성은 9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남한산성은 승려 각성(覺性)의 진두 지휘로 3년 만에 지어졌으니(1624년), 한강 남북의 두 산성은 승군의 불심(佛心)과 노역이 같고 다듬어진 공양(供養)이었다. 박연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성을 쌓는 대가로 공명첩을 받아 군역을 면제 받았는데, 그래도 막중한 노역이었음은 분명했다”며 “승려 외에 군인·도성민이 축성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능은 『북한지(北漢誌)』를 남겼다. 요새 나오는 책 제목으로 설명한다면 ‘북한산성에 관한 모든 것’이나 ‘알기 쉬운 북한산성’쯤 되겠다. 성능은 『북한지』 속 지도 ‘북한도’에 북한산성 정문 양쪽의 봉우리를 대선배(불교 용어로 ‘존자·尊者’ 또는 ‘대덕·大德’) ‘원효(元曉, 617~686)’와 ‘의상(義湘, 625~702, 『북한지』에는 義相으로 씀)’으로 표기했다.

김순배 한국지명학회 총무이사(충주 여고 지리 교사)는 “북한산성 초입의 두 봉우리를 원효봉과 의상봉으로 부르게 된 건, 두 대사가 한국 불교의 개조(開祖·종파의 원조가 되는 사람)로 통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며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나 그 이전부터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불기 2567년 5월의 한낮은 따가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탐방객 670만명 중 한 명, 2021년 기준으로는 736만명 중 한 명이 돼 북한산 대서문을 지났다. 대서문 편액은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 그의 호 ‘우남(鵞南)’이 새겨져 있다. 북한산성 승영사찰 13곳 중 하나였던 상운사에서 기거한 인연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대서문을 찾으면서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너무나 평탄해 속종의 걱정을 자아낸 길 위로 한 아이가 몇 발 앞으로 뛰어가더니 오른손을 들어 뒤따라오던 엄마와 가위바위보를

한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보를 걸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외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인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연규스님(전남 여수 항일애국 주지)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이다’로 잘못 쓸 수 있다”며 “하늘 안에, 땅 위에 모든 것이 존귀하고, 모든 것들은 깨달은 바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결국 차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는 세상을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속종의 길’ 중간 선봉사에는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실타르타상(像)이 석가탄신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이 뒤바뀐 상도 간혹 있다. 불기(佛紀)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준말. 그래서 불기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기원전 624년)부터 세는 게 아니라 열반(涅槃)한 해, 기원전 544년부터 세기 때문에 올해가 2567년이다.

석가모니는 인도 영취산(靈鷲山, 혹은 영축산·靈鷲山)에서 설법했다. 북한산에도 영취봉(靈鷲峰)이 있다. 아니, 있었다. 현재 영취봉은 염초봉으로 부른다. 성능도 『북한지』 속 ‘북한도’에는 ‘염초봉’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영취봉’이라고 썼다. 김순배 이사는 “현재도 그렇지만, 북한산에는 불교 지명이 많다”며 “하지만 사찰인 (경북 영주) 속수사 위에 유교를 대표하는 소수 서원이 세워졌듯, 조선 시대에는 불교 지명이 유교 지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취봉과 염초봉의 관계도 그럴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종의 길 중간 선봉사엔 실타르타상

염초봉(廉峭峰)은 ‘날카롭다’ 염(廉)과 ‘가파르다’ 초(峭)를 쓴다. 염은 청렴, 엄치로 두루 쓰이지만 ‘날카롭다’라는 뜻으로는 생소하다. 공자가 말했다. “옛날엔 사람에게 세 가지 병폐가 있더니 지금은 그것마저 없다… 옛날 공자가 센 사람은 청렴하여 위엄이 있었는데 지금의 공자가 센 사람은 화를 잘 내고 거세다…(古者民有三疾…今古之矜也廉, 今之矜也忿戾…논어 양화16)” 주희는 여기에서 ‘염(廉)’을 이렇게 해석했다. “염은 모서리가 뾰족(峭)한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바르고 위엄이 있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같은 해석을 했다. 권상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염초(廉峭)는 ‘물리적’ 가파름과 날카로움도 뜻하지만 ‘정신적’ 감직함과 울림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영취봉(염초봉) 서쪽 맞은 편에 나한봉이 있다. 나한(羅漢)은 부처의 말씀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은 고승(高僧)과 대덕을 일컫는다. 마주 보는 봉우리 사이에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김 이사는 “나한은 불제자이기에 부처로 상징되는 영취봉을 마주하는 것처럼 『북한지』에 지명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염초봉 밑에는 도교의 ‘칠성(七星)’이 새겨진 바위도 있다. 칠성각·삼신각 등 사찰 속 전각처

럼, 불교가 도교·민속신앙 등과 어울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북한산성을 찾은 속종은 길이 너무 평탄해 성문 하나를 더 짓도록 지시했다. 중성문은 그렇게 태어났다. 성능은 중성문 위, 북한산 13개 승영사찰의 중심인 중흥사에서 30년을 지냈다. 근처 봉성암에 그의 사리(舍利)를 안치한 부도(浮屠)가 있다. 중흥사는 태고사와 함께 북한산성 한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태고(太古)는 원종국사 보우(普愚, 1301~1382)의 법호다. 조계종의 중시조다. 김 이사는 “북한산성 축조와 사찰 배치는 승군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전략적 의미와 함께 역사 공간이자 문화 공간인 산성 위에 불교적 의미를 담으려던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서문이 정문이라면 후문은 어디일까. 대남문이다. 이 성문을 나오면 보토현과 북악산을 거쳐 경복궁으로 이어진다. 문수봉과 보현봉은 대남문을 협시(夾侍·받들어 모심)하고 있다. 석가모니를 좌우에서 모시는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에서 따온 이름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는 사자를 타고, 보시를 상징하는 보현은 코끼리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현보살·석가모니·문수보살(좌측부터)을 모시는 대웅전으로 부른다. 보살이 아니라,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약사여래(藥師如來) 같은 부처가 협시를 하면 격을 높여 대웅보전으로 부른다. 태고사에는 대웅보전이 있다.

속종은 후문 대남문이 아니라 대동문을 통해 북한산성을 빠져나가 환궁했다. 지난 23일 기자는 대동문을 지나 용암문을 통해 하산했다. 예불이 끝나는 시간, 도선사의 한 승려가 불전사물(佛殿四物)인 법고·범종·목어·운판을 순서대로 두드렸다. 땅 위의, 땅속의, 물속의, 하늘의 중생과 짐승·미물이 차례대로 깨어난다. 어둑해진 길, 연등이 켜진다. 불 켜는 뜻의 연등(燃燈)이 맞긴 하지만, 연꽃 모양이라 연등(蓮燈)으로 부르건 무슨 문제냐. 내 마음의 불이 켜지면 되는데. 김홍준 기자

## ▶ 1번 ‘황금빛 가을’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브릿지 포트에는 많은 이들이 최고라고 손꼽는 벵아이 노천 온천과 트레블턴 노천 온천이 있다.

만약 캠핑이 가능하다면 벵아이 노천 온천장에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한 캠핑장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자리한 트윈 레이크 리조트에

도 캐빈과 캠프장이 있다. 브릿지포트의 단풍 여정은 10월 한 달이다.

## 3. 벵트 랜체리아 캠핑장

남가주에는 아스펜이 자라는 장소가 많지 않다. 하지만 10월에는 제법 노란색으로 단풍 물결이 드는 곳이 있는데 라구나 마운틴이다. 그 가운데 벵트 랜체리아 캠핑장은 딱딱나무와 시카모

어나마가 노란색으로 물든다.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피크닉 구역에서 잠시 쉬어 점심을 즐기면서 가을 정취를 즐겨 볼 수 있다.

## 4. 파소 파카초 캠핑장

라구나 마운틴과 이웃하는 쿠파카 산맥에 자리한 이곳 캠핑장은 남가주에서 손꼽히는 유명 캠핑장이다. 키

큰 나무가 우거진 날찍한 자리에 샤워가 딸린 수세식 화장실과 커다란 화덕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하루 이를 쉬어 가기에 아주 좋다.

캠핑장과 이웃하는 피크닉 구역에는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시카모어와 딱딱나무들이 있는데 가을이 오면 노란색으로 물든다. 딱딱나무가 도토리를 저장하기 위

해 구멍을 잔뜩 파놓은 오크나무들도 구경할 수 있는 이곳 파소 피카초 공원 캠핑장은 자리가 넉넉해서 단체로 방문하기에도 좋다. 단지 이곳은 주립공원으로 입장료를 받는다.

남가주의 라구나 마운틴과 쿠파카 산맥은 10월 중순이 단풍 시즌이다.

김인호 여행작가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b>\$985,000</b>	<b>\$680,000</b>	<b>\$1,350,000</b>	<b>\$400,000</b>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업그레이트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트 많이하.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90년 전 즐긴 개성식 천렵국, 서울서 되살렸다

한낮이면 벌써 발길이 저절로 그늘을 찾는다. 여름이 오는 신호다. 오늘(21일)은 24절기 중 춘분부터 네 번째인 소만(小滿)이다. 태양이 황경(黃經) 60도를 통과할 때라는 말이다. 한 번쯤 들었음직한 운율이 떠오른다. “4월이라 맹하(孟夏)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 학유가 1816년 지은 『농가월령가』의 4월령(음력) 첫 구절이다.

절기는 천구에서 태양이 도는 궤도, 즉 황도 360도를 15도씩 24등분해 정한 날이다. 태음력의 단점을 보완해 태양의 위치와 계절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고안한 일종이 계절력인 것이다. 따라서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따른다. 소만이 되면 모내기 준비가 바쁘고, 보리 이삭은 누렇게 익기 시작한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이때가 끔찍한 춘궁기, 보릿고개다.

## 붕어·메기·동자개·피라미·누치 들어가

4월령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앞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 보세/ 해 길고 잔풍(殘風) 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죽고(數老)를 둘러치고 은린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 반석에 노구 걸쳐 솟구쳐 끓여내니/ 팔진미 오후청을 이 맛과 바꿀소냐”

잔풍은 한참 불고 나서 쉬 그치는 바람, 죽고는 코가 촘촘한 그물, 노구는 낚시나 구리 술이다. 은린옥척은 크고 싱싱한 은비늘 물고기를 말한다. 낚시는 덩고 허기진 보릿고개에 개울 물고기 잡아 어죽이나 어탕국수를 끓여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을까. 이게 천렵(川獵)의 묘미다. 강이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낚사냥, 천렵은 수렵·채취 경제 시대에는 중요한 생업 수단이었다. 그러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부업으로 밀려났다가 점차 놀이로 변했다. 근원이 그러하므로 천렵놀이는 강이나 내가 있으면 어디에서나 현재진행형이다.

잡은 물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은 지역과 물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향토색이 강하다. 특별한 요리법은 없다. 겨우 음식 모양을 갖춘 원초적 수준이지만, 분위기에 취해 즐겁게 먹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학습으로 전수된 음식이 아니라 재료와 장비의 제약이 심한 야외에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리해 먹는 방식이 경험과 견문으로 전승됐기 때문이다. 맛



1 채소 4가지를 곁들인 쏘가리찜. 2 천렵국 육수는 소·돼지·닭고기와 민물 고기를 푹 삶아 만든다. 3 천렵국 건더기를 먼저 먹고 난 뒤 넣는 메밀 수제비.

## ‘용수산’ 음식기업 잇는 ‘개성철립’

소·돼지·닭고기·민물생선 곤 육수 열무·얼갈이 넣고 고기 고명 올려 건지 먹고 국수나 밥 끓여 마무리

## “어머니 생전에 노래를 하던 음식”

용수산 창업주 아들이 메뉴 개발

을 낼 재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요즘은 라면과 분말스프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

1930년대 개성에서 끓인 천렵국에 대한 기록이 있다. “개성 사람들이 여름날 보신용으로 즐겨 먹던 천렵국을 끓이는 것이다. 모래사장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핀다. 가장 먼저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다. 살이 무르게 익도록 고기를 삶아 건져내면 다음엔 민물고기들을 그 국물에 넣고 살이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끓인다. 거기에 수제비를 떠 넣은 다음 열무와 깻잎, 마리 건져서 양념해 놓은 세 가지 고기와 참깨를 넣어 된장과 고추장으로 양념해 또 한소끔 끓인다.”

개성음식 전문 ‘용수산(龍水山)’ 창업주 최상옥(1928~2015) 할머니의 자전적 음식 에세이 『사랑만한 음식없

고 정성만한 양념없다』의 대목이다. 1980년 창업한 ‘용수산’은 한정식을 양식 코스 식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도하면서 한때 고급 한식당의 대명사로 이름을 날려 미국·중국까지 진출할 만큼 성업했다. 그분 기억에는 아마 ‘천렵’이 ‘천엽’으로 입력되었던 듯하다. 이 기록으로 본 천렵국은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음식이다.

이 음식을 서울에서 되살려 개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 최 할머니의 외아들인 김노수(65) 로얄하우스홀드㈜ 회장이 2022년 2월 18일(임인년 임인월 임인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개성철립’이라는 천렵국 전문 음식점을 열었다. ‘천렵’으로 표기해야 맞는 걸 모르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귀에 익은 ‘철립’으로 굳이 쓴 가슴 아린 사연과 야무진 꿈을 그는 말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여름만 되면 천렵국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성식 말투로 ‘조금 끓이면 맛이 나?’ 하시며 뜻을 접었다. 개성이 고향인 친구들 가운데 식구 많은 집에서는 해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못 해 들어서 그게 한으로 남았다. 천렵국을 평양냉면, 함흥냉면, 전주비빔밥처럼 음식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 개성 특산 음식으로 세상이 알아주게 해 그 한을 풀고 싶다. 이곳을 어머니가 하시던 개성음식의 방주를 구축하는 원점으로 만드는 게 꿈이다.”

어머니는 ‘용수산’을 35년이나 이끌었지만, 직접 끓여주는 천렵국을 먹어본 적은 없다. 메뉴를 개발하는 데 4~5년이 걸렸다. 어머니가 쓴 두 권의 책에 나오는 천렵국 기록을 토대로 수없이 실험하면서 맛을 잡아갔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잡냄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맛은 뭔가 모자랐다. 2%가

부족했던 것이다. 오랜 감장 친구들이 나머지를 채워줬다.

첫째는 고고 때 단짠인 유병수 소장 한의원 원장의 한방 보약 강근골탕(強筋骨湯)이다. 포장한 탕약을 민물고기 반 숟가락 때 세 포, 돼지고기·닭고기 삶은 때 한 포를 넣으니 잡내가 사라졌다. 그래도 1%가 부족했다. 충남 아산 ‘李家수불’ 양조장의 이상현 대표에게 요청해서 받은 술지게미를 곱게 갈아 양념장에 총량의 10%쯤 넣었더니 마지막 1%가 채워졌다. 알코올 함량 19%의 탁주를 빚는 역가 높은 누룩에 어떤 힘이 있을 거라 짐작했는데 그게 적중했다.

## 강근골탕·술지게미 넣어 잡냄새 없애

천렵국은 육수에 양념장 풀고, 데친 열무·얼갈이와 마나리 넣고, 곁 따라 손으로 찢은 세 가지 고기와 민물새우를 고명으로 올려 냄비 그득하게 채워 나 온다. 육수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삶은 국물과 민물고기 뼈가 흐물거리도록 푹 곤 국물을 반 숟씩 준비해 한 숟에 섞어 다시 끓여 만든다. 식탁에서 끓이면서 건지(건더기)를 건져 먹고, 취향에 따라 통밀국수·메밀국수·메밀수제비·쌀밥 등을 추가로 주문해 남은 국물에 끓여 먹는다. 육수는 원하면 계속 부어준다.

처음에는 국물 맛과 간이 좀 싱거운 듯하지만 끓일수록 진하고 깊어진다. 특히 국물 재료를 넣고 끓인 다음 국물 맛의 변화는 오묘 같다. 실내에 걸린 캘리그래피 작품들 가운데 ‘잡고기’라는 제목의 글이 천렵국 맛을 보낸다. “이름 없는 물고기 열 마리/ 쏘가리 한 마리 이겨내는 것은/ 서로 뒤섞여 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민물고기는 노랑진수산시장에서 사 온다. 붕어·메기·동자개(뽀가사리)·피라미·누치가 들어간다. 동자개만 중국산이고, 다른 건 국산이다. 양념장에는 몽고된장(제품 이름)·고춧가루·천일염을 기본으로 마늘·풋고추·생강·민물새우를 갈아서 넣는다. 김 회장은 “인공 조미료도 국산과 일본산 두 가지가 조금 들어간다”고 서슴없이 밝혔다.

쏘가리찜과 매운탕도 한다. 쏘가리는 2018년 양식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아 귀한 음식이다. 8~9월부터는 쏘가리 회도 할 예정이다. 가볍게 곁들일 메뉴로 양지무침, 추하튀김, 제육전유어, 고수무침이 있다. 계절 메뉴로 서리태 콩국수도 한다.

이택희 음식문화 이야기꾼



4 천렵국 육수에 쓰는 한방 강근골탕(強筋骨湯). 5 개성철립 김노수 대표. 6 천렵국 국물은 양쪽 술에 고기와 민물 고기를 달고 가운데 술에 합쳐 다시 끓인다. 7 쏘가리찜 1차 조리위해 생강·대파를 깔고 찜다. 신인섭 기자

##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Bankruptcy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 다양한 할인보장
- 스페셜 이자
-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 프리미엄 대상 수상

“빌페이지 토요타에 다~ 있습니다!”

## 빌페이지 토요타

빌페이지토요타닷컴

www.BillpageToyota.com

신차부터 중고차, 다양한 모델의 성능에 연비까지~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최고의 한인 전문팀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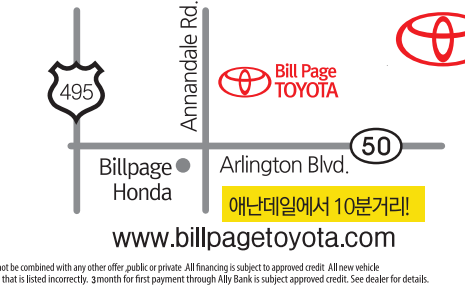


아직도 새차 물량이 부족합니다 빌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20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2018 Toyota Corolla LE Sale Price \$18,795 Mileage: 66,172 Stock#: P7175	2017 Toyota Camry SE Sale Price \$18,995 Mileage: 71,684 Stock#: P7046	2018 Toyota RAV4 XLE AWD Sale Price \$22,349 Mileage: 81,272 Stock#: P7124	2021 Toyota Corolla Hybrid LE Sale Price \$22,598 Mileage: 69,099 Stock#: P7160	2018 Toyota C-HR XLE Sale Price \$22,997 Mileage: 72,926 Stock#: P7136	2016 Lexus RX 350 Advance Pkg Sale Price \$31,300 Mileage: 41,052 Stock#: P7088	2018 Acura TLX Sale Price \$26,000 Mileage: 36,158 Stock#: P6711	2021 BMW 530i xDrive Sale Price \$33,795 Mileage: 47,846 Stock#: P7081	2017 Ford Mustang GT Premium Sale Price \$34,356 Mileage: 24,628 Stock#: P7009	2017 Honda HR-V LX Sale Price \$17,248 Mileage: 76,474 Stock#: P7134
---	---	---	--	---	--	---	---	---	---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려에 문의 주세요)  
텍스 아이디로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페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원 확인바랍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매니저팀  
줄리 박 443.710.1207  
제네럴 매니저 차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Prices include all applicable current manufacturer rebates. Additional factory rebates such as recent college graduate or military may be available. All vehicles are subject to prior sale. All prices are special internet prices only and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public or private. All financing is subject to approved credit. All new vehicle prices exclude freight, tax, tag and processing fee of \$798. We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but please verify options and price before purchasing. Bill Page Toyota/Scion can not be held liable for data that is listed incorrectly. A smooth first payment through My Bank is subject approved credit. See dealer for details.



# ‘가성비 끝판왕’ 이스탄불... 난생 처음 명품도 사봤다

10년째 신혼여행  
튀르키예 이스탄불

10년새 1리라 700원→50원대로  
10만원에 먹은 양갈비 1만5000원  
전통차 무한리필 재래시장도 매력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다(인구 약 1590만 명). 사람들로 북적대는 소란스러움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당연히 심심할 틈이 없다. 이스탄불 사람은 유독 호기심과 정이 많아서, 여행자를 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특히 우리처럼 동글동글하니 사람 좋게 생겼다면 귀찮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

### 내년의 여행

튀르키예와는 인연이 남다르다. 이 나라에서만 한 달 살기를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중 세 번을 이스탄불에 머물렀다. 요즘 간혹 해외 뉴스에서 이스탄불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바로 돈 때문이다. 최근 몇 년새 자이로드롭을 탄 것처럼 환율이 떨어져 버려서다.

튀르키예의 화폐 단위는 ‘리라’다. 이스탄불을 처음 찾았던 2012년에는 1리라가 우리 돈 700원 정도였다. 당시 ‘양고기는 튀르키예가 싸다’는 소리를 듣고 고깃집을 갔는데 웬걸, 140리라(약 10만원)가 적힌 계산서를 보고 ‘여기도 유럽이구나’ 싶었다.

그다음 해 이스탄불에 돌아왔을 때는 1리라가 600원쯤이었는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였기에 부담 없이 먹고 즐길 수 있었다. 다시 1년 뒤 방문 때는 급기야 원·리라 환율이 5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당시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현지도 여러 번 목격했다.

리라 가치가 200원 아래로 떨어진 2018년의 어느 날. 우리는 이스탄불의 버버리 매장 앞을 둘러싼 긴 줄을 목격했다.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생긴 환차익을 누리려고 많은 사람이 명품 매장에 몰려든 거였다. 종민도 이날 태어나 처음으로 명품 안경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 끝물에 방문했을 때는 1리라가 100원대를 간신히 유지 중이었는데, 흡사 동남아를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10만원 주고 먹었던 양갈비를 단돈 1만5000원에 맞출 수 있었다.

현재는 원·리라 환율이 50원대까지 떨어졌다. 리라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건값이 급격히 상승하는가 하면, 여



1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금각만 해협과 갈라타 다리. 중앙의 높은 탑이 랜드마크인 갈라타 타워이다. 2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된 ‘그랜드 바자르’ 시장. 15세기부터 동서양 문물이 활발히 거래된 장소다. 3 이스탄불 도심 광장의 분주한 모습. 4 불임성이 탁월한 이스탄불 사람들. 5 고급 음식으로 통하는 양갈비도 튀르키예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6 튀르키예의 전통 차차이.

행객을 상대하는 관광지 물가도 부쩍 올랐단다.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 튀르키예로 떠날 적기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한 달 살기’처럼 관광지 투여보다 로컬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여행이라면 떨어진 환율을 몸소 느낄 수 있을 테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행

에서 경비만큼 중대한 문제도 없지 아니한가.

### 남편의 여행

첫 ‘이스탄불 한 달 살기’는 끔찍했다. 숙소가 문제였다. 마흔여섯 번의 한 달 살기 경험을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의 집이었다. 숙소는 6개월

전 예약을 마쳤다. 꼼꼼히 따져 골랐지만, 새벽 6시에 도착한 숙소의 물결은 처참했다. 양말과 옷가지 문치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방 전체에서 찌든내가 났다. 평생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의 서재보다 냄새가 강력했다. 우리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집주인은 별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 “더러우면 좀 치워 줄까?”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호객 행위를 당해왔지만, 손님을 불러 앉혀 놓고 그들의 전통차를 무한 리필해주는 나라는 튀르키예가 처음이었다.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중 가장 큰 곤혹이 바로 이 느닷없는 초대였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건 개의치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혀 놓고(그도 여의치 않으면 가만 구석에 세워 놓고) 전통차 ‘차이’를 연신 따라줬다.

이스탄불에서 한 달 살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도 이제는 제법 능청이 생겼다. 요즘은 차이를 한잔하고 싶으면 ‘그랜드 바자르’ 시장으로 씩씩하게 들어간다. 차이를 얻어먹는 나만의 방법도 있다. 일단 인상 좋아 보이는 상인의 가게 앞에서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한다. ‘아지! 부 네카다르?(아저씨! 이거 얼마예요?)’하고 물어보면 대번 점원이 가게 안쪽으로 손짓한다. 자리에 앉으면

차이를 대접받을 수 있다. 이제는 더듬 더듬 대화도 주고 받는다. ‘네레리슨(어디서 왔나)’ ‘귀네이꼬레(남한)’하는 식의 간단한 회화지만, 차이 한 잔을 마시는 동안은 돌도 없는 친구가 된다.

첫 이스탄불 여행 때 우리는 결국 담배 냄새보다 역했던 그 방을 빠져나왔고, 급하게 다른 숙소를 구했다. 새 숙소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근사한 집이었다. 비용이 맞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정을 들은 집주인이 기꺼이 방을 내줬다. 처음엔 그들의 대책 없는 불임성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넘치는 인간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탄불에 다녀온 뒤로 나도 제법 외지인이 되어갔다. 서울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만나면 넘치게 참견을 하고 싶어진다.

글·사진=김은덕·백종민 여행작가

###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 달 살기 정보

- 비행시간 11시간 • 날씨 봄, 가을 추천 • 언어 튀르키예어(어순이 한 국어와 유사하여 익히기 수월한 편) • 물가 현지 동네 물가는 태국 방콕 수준(단, 외국인용 상대하는 관광지 물가는 달라나 유로에 맞춰져 다소 비쌌) • 숙소 500달러 이상(집 전체, 중심부에서 30분 내외 거리)

## 10월 HOT 리스팅

<p><b>페어팩스 타운홈</b>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b>\$890,000</b></p>	<p><b>센터빌 타운홈</b>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b>\$600,000</b></p>	<p><b>센터빌 싱글홈</b>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b>\$675,000</b></p>
<p><b>싸우스그래스 타운홈</b>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b>\$665,000</b></p>	<p><b>스프링필드 타운홈</b>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b>\$630,000</b></p>	<p><b>스프링필드 싱글홈</b>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b>\$650,000</b></p>

###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 꼭, 약삭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매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sup>99</sup>**  
Lunch Dine-in Only

##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 Monday Dinner

####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sup>99</sup> → 59.<sup>99</sup>**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 Tuesday Dinner

####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sup>99</sup> → 69.<sup>99</sup>**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 Wednesday Dinner

####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sup>99</sup> → 59.<sup>99</sup>**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it one day at a time; 서두르지 않고

(Mark a high school athlete who injured himself in an accident is talking to his parents...)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마크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Dad: So how's your leg coming along? 아빠: 그대 다리는 어떠니?

Mark: It's okay. It still hurts to walk on it. 마크: 괜찮아요. 아직 걸으면 아프긴 해요.

Mom: How long did the doctor say it will take to heal? 엄마: 의사는 얼마나 있어야 낫는다고 하던?

Mark: About six weeks. 마크: 한 6주 정도요.

Mom: I just wish you didn't have to choose football. Why not baseball? 엄마: 꼭 풋볼을 안 해도 좋으려만. 야구는 안 되니?

Dad: Or ping-pong? 아빠: 아니면 탁구는?

Mark: I love football Mom. I'll just have to take it one day at a time. 마크: 전 풋볼이 좋아요. 엄마. 서두르지 않고 다

친 것부터 해결하고요.

기억할만한 표현

▶ How is (something) coming along?: (무엇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I'm hungry. How is dinner coming along? Can we eat soon?"

(나 배고파. 저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금방 먹을 수 있어.)

▶ Easy does it: 조심스럽게 하다.

"Easy does it. Let's put the piano down slowly. Don't drop it."

(살살해. 피아노 천천히 내려놓자. 놓치지 마.)

▶ in no time: 금새, 재빨리.

"He ate his breakfast in no time because he was late for work."

(그는 직장에 늦게 돼서 아침을 급히 먹었어.)

날말퀴즈

Grid for the word puzzle with numbers 1-26.

가로 열쇠

(1)고기나 생선 따위를 양념하지 않고 맑은 물에 푹 삶아 익힘. 영계 ~ (2)철없는 어린아이 (4)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조짐. 지난봄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였다 보다 (6)오래 삶 (8)이슬비보다는 좀 굵게, 가늘게 내리는 비 (10)콩을 삶아서 짠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11)돈 많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적 유혹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젊은 남자의 부류 (13)곤충이 애벌레로부터 엄지벌레로 되는 과정에서 고치 속에 들어 있는 몸 (15)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 (17)무대와 등장인물은 같지만 매회 이야기가 다른 방송 코미디 (19)곡

식을 씻어 내 부엌에 된 물 (20)대기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상 굴절 현상 (22)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 인류 수명 연장에 공헌하였죠 (24)기차나 배 따위에서, 증기의 힘으로 내는 소리 (25)꽃의 모양을 놓아 짠 돛자리. 돛자리는 강화도산 ~이 유명하다 (26)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돛

세로 열쇠

(1)흰 종이의 날장. ~도 맞들면 낫다 (3)목표물에 맞지 않을 경우 되 돌아오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 (5)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돌 하나 풀 하나를 가만히 보면 ~의 놀라운 창조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7)손으로 직접 만들. ~

구두 (8)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9)당번을 설 차례가 아닌 (10)비늘이 없고 미끈거리며 긴 수염이 있는, 입이 큰 민물고기 (12)출가하여 불문에 든 여자 승려 (14)이성끼리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15)과총류, 곤충류 따위가 자라면서 벗는 껍질 (16)살갓을 바늘로 찢러 먹물이나 물감으로 새긴 글씨나 그림 (17)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데 쓰는 둥근 질그릇 (18)위아래가 다른 천으로 된 양복 한 벌 (19)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21)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 (23)솔바닥에 늘어붙은 밥.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영어로 바비 브라운이라고 한다고 하죠

스도쿠

9x9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Completed 9x9 Sudoku grid.

① 워싱턴 중양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미동부 워싱턴 지역  
**토박이 한인마켓!**  
롯데플라자마켓  
(Since 1976)

# LOTTE PLAZA market

•VA & MD Weekly Sale: Oct. 6 Fri - Oct. 12 Thu, 2023  
 FRI 6 SAT 7 SUN 8 MON 9 TUE 10 WED 11 THU 12  
 www.lotteplaza.com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주간 세일 및 이벤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b>3 LB</b> 한국산 원황배 Korean Pear (9-10S) 28.99 BOX	<b>3 LB</b> 거봉포도 Kyoho Grape 3.99 PK	<b>1 LB</b> 백도(대) White Peach (Large) 1.49 LB	<b>1 LB</b> 햇갈라사과 Gala Apple 0.99 LB	<b>1 LB</b> 파인애플 Pineapple 2.49 EA	<b>1 LB</b> 빨간 자두팩 Red Plum 0.99 PK
<b>3 LB</b> 하미멜론 Hami Melon 0.89 LB	<b>3 LB</b> 흰용과 White Dragon Fruit 2.99 LB	<b>1 LB</b> 망고스티민 Mangosteen 9.99 LB	<b>1 LB</b> 리치 Lychee 3.99 LB	<b>1 LB</b> 아보카도 Avocado 1.29 EA	<b>1 LB</b> 한국무 Korean Radish 13.99 BOX
<b>3 PK</b> 무지개 피망 Rainbow Pepper 2.49 PK	<b>3 PK</b> 느타리버섯 Oyster Mushroom 5.99 PK	<b>1 LB</b> 단호박 Kabocha 0.69 LB	<b>1 LB</b> 유기농 생강 Organic Ginger 1.79 LB	<b>1 LB</b> 베이비청경채 Shanghai Tip 0.99 LB	<b>1 LB</b> 한국양배추 Korean Cabbage 0.69 LB
<b>10 LB</b> 노랑양파(망) Yellow Onion 3.99 BAG	<b>3 EA</b> 2색 옥수수 Bi Color Corn 0.99	<b>1 EA</b> 컬리플라워(대) Cauliflower (Large) 2.99 EA	<b>LIMIT 1 BOX</b> (Purchase of \$30 or More) <b>50% 이상</b> 구독시		

상주 대한민국 아자개쌀 Aja Gae Rice 19.99 22 LB	상주 정품참쌀 Korea Grown Sweet Rice 19.99 15 LB	상주 진라면(매운맛/순한맛) Jin-Ramen (Spicy / Mild) 3.99 4X120 G	상주 탕글라면(불고기 파스타) Tangle Ramen (Bulgogi Pasta) 4.99 4X120 G	상주 삼양라면(6소용) Samyang Ramen (6 Small Cans) 7.99 6X120 G
삼양 불닭볶음면 컵-6소용 (짜/카르보/치즈) Hot Chicken Flavor Ramen & Small Cup (2X Spicy / Carbo / Cheese) 7.99 6X120 G	삼양 고춧가루 Red Hot Pepper Powder 7.99 3 LB	삼양 볶음콩 Roasted Sesame Seeds 6.99 30 OZ	삼양 콩 Yellow Sesame Seeds 5.99 30 OZ	삼양 오징어상 오징어 세트 (스프 포함) Assorted Octopus Set With Spicy Sauce (Choleraeun) 2 for 5.00 9.7 OZ
삼양 백합조개탕 Cooked White Clam 2.99 14 OZ	삼양 산채 비빔밥/소고기 비빔밥/닭고기 비빔밥 Bibimbab Bowl (Vegetable / Vegan Beef / Vegan Chicken) 4.99 11.75 OZ	삼양 매콤 닭가슴살/닭근육볶음 Spicy Pork Neck with Vegetables / Chicken Gizzard with Vegetables 5.99 13.6 OZ	삼양 이마트진짜 돼지고기 수육/매콤 불족발/닭 불고기 Sliced Pork Belly / Spicy Boneless Pork Hocks / Grilled Chicken Bulggog 6.99 21 OZ	삼양 불닭볶음면(로제/모짜렐라) Tobikooki (Rose / Mozzarella Cheese) 4.99 14.8 OZ
삼양 바우절 반찬가득한 비빔밥 Frozen Baked Baby Clam Pancake 7.99 2 LB	삼양 유기농 순부두 Organic Extra Thick Tofu 1.29 11 OZ	삼양 유기농 두부 (매운맛/부추콩/생선콩) Organic Tofu (Spicy / Bean / Seitan) 1.49 14 OZ	삼양 순살 (떡국떡/떡볶이떡) Nori Cake (Stead Type / Steak Type) 3.99 1 KG	삼양 반찬이 Korean Stuffed Pancake (Pork) 4.99 1 LB
삼양 비빔밥 Seasoned Seaweed Fike (Sunflower Seed & Almond) / Shrimp & Anchovy / Pollock Rice / Cheese) 1.79 50 G	삼양 런치미트 Port Lunchmeat Pancake 2.99 12 OZ	삼양 골든 커리 Golden Curry (Mild / Hot / Hot & Hot) 2.99 7.8 OZ	삼양 찰호떡 믹스 Korean Stuffed Pancake Mix 2.99 12 LB	삼양 토마토사과소면 Tomato Ramen Noodle 2.99 3 LB
삼양 보비티 컵 (백/흑/마차/타로) Bobbi Tea (White / Black / Matcha / Taro) 4.49 10 OZ	삼양 토니콜 블루아메리카너/소워트 (매운맛/매운맛/매운맛) Tonic Brew (Newspaper) / Sweet Americano / Vanilla Latte 4 for 5.00 16.9 OZ	삼양 감자칩(오리지널)/자색고구마칩/감자칩(사워크림 & 에니언) Potato Chip Original / Purple Sweet Potato Chip / Potato Chip (Sour Cream & Onion) 2 for 3.00 5.64 OZ	삼양 새우칩 Shrimp Chip 3.49 8 OZ	삼양 하니버터칩 Honey Butter Chip 2.99 4.23 OZ

**POULTRY & MEAT** LOW PRICE AND BEST MEAT PROMISED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b>16.99</b> 가족패키지 앵거스 LA갈비 Angus Beef Bone In Short Ribs (LA Style) 14.99 LB	<b>4.99</b> 돼지찜갈비 Pork Spare Ribs Cut 3.99 LB
<b>10.99</b> 앵거스 목심스테이크 Angus Beef Boneless Chuck Eye Steak 9.99 LB	<b>6.99</b> 돼지목살수육 Pork CT Butt Chunk 4.99 LB
<b>10.99</b> 냉동 대패삼겹살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Paper-Thin 7.99 LB	<b>10.99</b> 양념 별집삼겹살 Marinated Pork Tenderized Single Ribbed Belly 5.99 LB
<b>1.99</b> 닭쿼터랙 Chicken Quarter Leg 1.29 LB	<b>12.99</b> 무항생제 목초우유 Grass Fed Beef Strip Loin NY Steak 11.99 EA

**FRESH SEAFOOD** YOU WILL FEEL THE SCENT OF THE SEA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b>8.99</b> 자연산 빨간 머리새우 Red Shrimp (Head On, 1lb-20) Patagonica 5.99 LB	<b>34.99</b> 마른 꼴뚜기 Dried Baby Octopus 24.99 LB
<b>8.99</b> 동태알 Pollack Roe 6.99 LB	<b>3.99</b> 수조기 Croaker W/R 2.99 LB
<b>3.99</b> 동태(알라스카산) Frozen Pollack Whole (Alaska) 2.99 LB	<b>3.99</b> 연어 스테이크 Salmon Steak 7.99 LB
<b>9.99</b> 아구 Mormik Fish 3.99 LB	<b>3.99</b> 흑도미 Porgy 2.99 LB

**HOUSEWARE** MAKE YOUR LIFE EASIER & STYLISH

<b>24.99</b> 기력보강식 Red Ginseng Extract Stick 300ML	<b>34.99</b> 홍삼정식떡 Red Ginseng Extract Stick 300ML
<b>189.99</b> 욕조 Dry Heated Foot Bath EA	<b>89.99</b> 저당밥솥 (흰색/검정색) Low Sugar Rice Cooker (White/Black) EA
<b>14.99</b> 3D 코팅 공중부양 3D Coating (Whisper) Propan EA	<b>25.99</b> 후라이팬 냄비세트 (8.20인 200ML / 9.8인 180ML) Pan Set EA
<b>16.99</b> 불화장지 Soft Toilet Tissue 300 SHEET	<b>8.99</b> 기모 여성용 바지 Fleece Lined Pants PAIR
<b>4.99</b> 아기글 Baby Blue Slippers PAIR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IASE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10월 5일(목) ~ 10월 8일(일)**

**농수산식품 특판행사**

**틸라피아 필렛**  
Special Tilapia Fillet, Special Price!

**\$2.99 LB**

**2023 SPECIAL CENTREVILLE YARD SALE**  
OCT. 5th (THU) - 9th (MON)  
Centreville Lotte Plaza Market



10월  
구  
인  
광  
고

##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http://www.EdgeSalonStudios.com)

##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mailto: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http://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mailto:admin@visitlod.com)

###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mailto: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mailto: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 FOR SALE

(사업체 판매)

###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mailto: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mailto:raphaell@ccdc.edu)  
[www.ccdc.edu](http://www.ccdc.edu)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mailto:naturadent@gmail.com)

###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mailto:topcpainfo@gmail.com)

##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한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 스폰서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유경험 대우 베네핏 제공 \$4만 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서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 3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 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a@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토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 (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 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 (영문)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 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셜 마사지사  
월드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cr@gmail.com

병원에서 일 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Fulltime)  
Receptionist (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오후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 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한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9AM to 5PM  
resume.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서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서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달라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 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첸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ime /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 / 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830-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서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테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함  
니다 영주권 스폰서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티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티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티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 일할 홀 담당자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 로얄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티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헌든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티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케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정가능 19불.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티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티타임 캐셔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티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클드 샌드위치 유경험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 조절 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티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티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샘스버버(롤튼)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세탁/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티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틀에서 파티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서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케비넷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트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티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넷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텍) 20년 경력의 핸드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뷰어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휴엘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빌딩청소하실분 파티타임 남여1명 장소칼레지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해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교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바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팩스(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하교 도와 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 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무마루. Deck. 메트로역 바로 앞. 즉시 입주!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 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1. 센터빌 싱글룸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소핑룸,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장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워싱턴 선교단**

**단원 모집**

《매년 지역 선교 예술제 공연》

**주요사역**

울동으로 찬송가 & 복음성가 워싱턴 공연을 사모하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단원 희망자, 영적/물적 후원 원하시는 분 문의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서재진 원장  
619-873-7323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929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p>벤든 메트로 옆타운홈 \$2,850 방3, 화2 1/2, 차고 2, 새부엌, 새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p> <p>게인스빌타운홈, 방3, 화4, 1952sqft, 2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p> <p>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p> <p>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3, 화2, \$1900 New paint, dishwash,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p> <p>Fairfax, 방3+다락방, 화장실2 Oakton HS, \$2500 703-585-4183</p> <p>센터빌타운홈 \$2,950 방3, 화2.5 쇼핑몰&amp;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p> <p>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4, 화장실3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571-245-1495</p> <p>센터빌 3층, 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3, 화3.5, 차고 1개, 맥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 집 703-489-6926</p> <p><b>〈콘도 렌트〉</b></p> <p>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2, 화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 리모델 부엌 &amp; 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p> <p>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m 방2, 화장실1, Metro 역 걸여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amp; Granite Counter Tops, Washer &amp; Dryer ▶703-477-3114</p> <p>콘도(Annandale) \$2,100/m 방2, 화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 니, Washer &amp;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p> <p>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방1, 화1. 파킹2. 12월 초 입주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p> <p>10월 1일 / 초순경 ANNANDALE 의 콘도 같이 입주할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p> <p>헤이마켓 콘도 차고1, 방3, 화2/1, 2215sq 703-489-6926</p> <p>애난데일 방2, 화1, 렌트 \$1600, 전기요금 별도 703-403-8918</p> <p>Falls Church Condo 렌트 방2, Metro/66 도로 모두 갖추어진 깨끗한 집, 렌트 (\$1550+ condo fee) 703-336-3283</p> <p>콘도(단기렌트) 방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p> <p><b>〈방렌트〉</b></p> <p>셜약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1, 화1, 금연자 (571)243-6295</p> <p>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p> <p>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p> <p>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amp;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p>	<p>페어팩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p> <p>버크 싱글홈 반지하전체 별도 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 유포,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환영 571-216-4775</p> <p>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p> <p>원룸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p> <p>방세 놓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p> <p>애난데일 예촌 앞 방세 놓습니다.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p> <p>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p> <p>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p> <p>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p> <p>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p> <p>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p> <p>센터빌 싱글지하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p> <p>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안테나/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p> <p>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p> <p>버크 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p> <p>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p> <p>조지메이슨 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 Hmart 도 가까운, 반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p> <p>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p> <p>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p> <p>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p>	<p>싱글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p> <p>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p> <p>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 가능. 703-403-8918 (Lee)</p> <p>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p> <p>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 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p> <p>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층 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p> <p>센터빌 브라더로드 조용한 집 싱글홈 방 1 렌트 욕실 인터넷 703-909-1609</p> <p>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담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문자 571-243-7027</p> <p>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원함. 703-405-9005</p> <p>방 1개 렌트, 옥트/비엔나 지역 인터넷, 1파 킹, 세탁기 &amp; 건조기, 부엌사용가능, 비엔나 메 트로 5분, 교통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p> <p>지하방 2 넓은 공간에 세탁기 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p> <p>애난데일 서울순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 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p> <p>Fairfax Brigade Ln 큰방 1, 큰옷장, 별도 큰 욕실, 책상 침대, 침구, 세탁, 유틸리티 포함. 여자분 환영 \$850/m 703-919-2661</p> <p>MD 저먼타운 싱글홈 욕실 딸린 큰방 1 하고 반지하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p> <p>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조용한 아파트, 버 스 교통편리, 널널한 주차장, 가게/식점도 보거리, 깨끗이 리모델링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p> <p>방1, 욕실 별도, 주차장, 출입문 별도 잠만 주무실 분, 남학생환영, 금연자 703-472-0929</p> <p><b>〈사무실/점포 렌트〉</b></p> <p>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p> <p>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p> <p><b>〈싱글/타운/콘도 매매〉</b></p> <p>콘도(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여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amp;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amp; 건물) ▶703-477-3114</p> <p>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편리</p>	<p>▶703-477-3114</p> <p>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 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amp;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amp; Walmart 가까움. \$229,000 ▶703-477-3114</p> <p>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amp;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편리. Lotte Mart 가까움. \$299,000 ▶703-477-3114</p> <p>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116 sf 우리 어메리카은 행 근처 차 3대 파킹할 수 있음. ▶703-813-8949</p> <p>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총 2,252 sf 2 Level Bump- 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p> <p>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 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amp;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p> <p>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풀사이드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p> <p>Centrevill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p> <p>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 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 나온 집. 571-567-5797</p> <p>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 미술 학군 703-489-6926</p> <p><b>〈부동산/상업용 매매〉</b></p> <p>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가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 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p> <p>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0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p> <p>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곳 571-242-3736</p> <p>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p> <p>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amp;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p> <p>애난데일 마트 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p>	<p>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p> <p>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임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p> <p>상업용 건물 / 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p> <p>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p> <p>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p> <p>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p> <p>마켓내 상업용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p> <p>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킴 ) 240-381-1615</p> <p><b>기타</b></p> <p>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모여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p> <p>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p> <p>명인택시 공항 픽업 &amp;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p> <p>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p> <p>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p> <p>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p> <p>ZOOM-ART - Pen &amp;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p> <p>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R \$ 600 2) PXG 0811x+PROTO 10.5 도 /R \$170 301-717-7960</p> <p>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p> <p>중 / 고 수학과 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p> <p>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 -919- 1788.</p> <p>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이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p>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닝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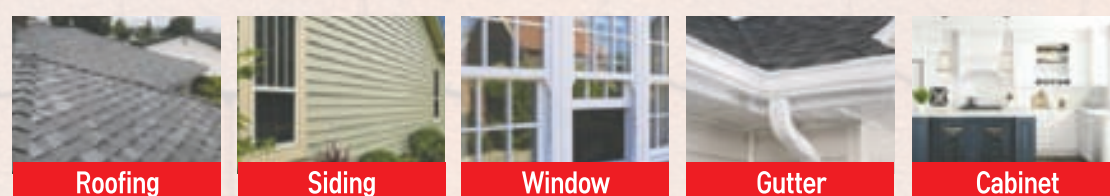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http://www.myroofersusa.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구인

**라스베가스지역**  
 (562)332-0765  
 Beauty Supply 매매  
 가격: \$12만+INV,  
 3,300sqf. 월렌트: \$2,700  
 연매상: \$40만

**일본식당 직원모집**  
 사세확장으로 함께  
 성장하실 분  
 \*스시 웨프 0명  
 \*히바찌 웨프 0명  
 \*웨이터/웨이트리스 0명  
 참석제금  
 앨라배마 지역  
 (251)968-2525 (256)653-1970

**뷰티 서플라이 매매**  
 플로리다 올랜드  
 매상 \$1,000,000/년  
 렌트 \$5,000  
 매매가 \$500,000  
 T.407-928-3057

**주방국 & 헬퍼**  
 부부팀환영, 친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매매**

**맞춤 홈패션**  
 50년 경력으로 쿠션,  
 침대커버, 인테리어 소품  
 그외 모든 홈패션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213)505-3898

**애틀랜타**  
 구인

**매매**

**기타지역**  
 구인

**모텔매매 가 50만**  
 년매상 26만, 방24개  
 실립집 따로, 같은 건물  
 뉴멕시코 I-40번과Rout  
 66 선상 위치,30년운영  
 은퇴 (505)287-2835

**매매**

**소액투자자**  
 식당운영하실분  
 돈가스/한식/치킨  
 좋은상권, 마켓팅  
 (714)356-3786

**저렴한 E2 사업체매매**  
 AZ피닉스공항에서 30분거리  
 현주인2007년부터 운영  
 E2승인및 연장 총7번  
 갱신된 영주권취득해서 매매  
 안젤라 (480)285-9605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리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주산삼** **chunjongsansam.com**

심마니 장석훈의 **眞品 眞品 眞品 천주산삼**

**213.388.1234**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우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뉴스 통합 모바일 App  
**(213)368-2532**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기법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7 (플러턴)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6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유관 도인력사관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VC 2000** 천연항염, 진통 혈관 탄력  
**MEGA** 뼈, 골수 영양 면역력 강화  
**로얄** 항바이러스 면역력강화  
**Golden Water** 심장, 뇌 현전 용해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샌페드로: 213,765,9677      패밀리카어: 714,521,3535  
 LA코리야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비치약국: 714,739,8811  
 시운약국: 213,344,9730      LA 한곡마켓 약국: 323,464,3925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LA 헬로마켓 약국: 213,388,4100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텍사스: 214,998,8861  
 현대약국(웨스턴+5기): 213,480,3322      LA벌론 갤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유타: 801,888,6775  
 LA시운마켓 엄마스 약국: 213,739,3030      LA시운마켓 약국: 323,464,392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뉴욕/뉴저지: 201,310,8391  
 LA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소망약국: 818,832,2757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플러턴 내치양양센터: 714,690,0120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약국: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부에나비크 지구촌약국(하마트내): 714,228,9212      웰빙건강 허와이언가든: 562,631,4264      조지아(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세리토스 패밀리 약국: 562,402,0500      플러턴(간강마을): 206,229,5466      플로리다/NC/SC: 770,457,1717  
 부에나비크 플러턴 약국: 714,992,4935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하와이(간강마을): 206,229,5466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시운약국: 323,733,7788      하와이(홍삼나라): 808,952,9966  
 시운약국: 323,733,7788      시운약국: 323,733,7788      하와이 생약촌: 808,381,1909  
 시운약국: 323,733,7788      시운약국: 323,733,7788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빠른! 비즈니스 펀딩**

**비즈니스 오너에게 드리는 특혜**

- 24시간 안에 승인
- \$5,000-\$200,000
- 99% 승인
- 저렴한 가격

**크레딧 체크 없이 2일 이내 펀딩**

**지금 수지 와 통화하세요!**

**www.QMadvance.com**  
**e mail : suzie@QMadvance.com**





**SPECIAL SALE**  
지구촌마켓 빅세일

- 사과 # LG Size Fuji & Gala Apple **99¢** / LB
- 양파다발 #3LB Bag Yellow Onions **\$1.49** / Bag
- 클레멘타인 # 3LB Bag Clementines **\$3.99** / Bag
- 토마토 # 5 X 6 Tomatoes **99¢** / LB
- 중국가지 # SALE Chinese Eggplant **99¢** / LB
- 단호박 # Medium Size Kabocha Squash **69¢** / LB

**지구촌마켓 GLOBAL FOOD**

Woodbridge, Silver Spring Weekly Sale  
Oct 6 Fri - Oct 12 Thu 2023

Fri 6 Sat 7 Sun 8 Mon 9 Tue 10 Wed 11 Thu 12

오픈시간: 월~일요일 (9am~9pm)  
www.iglobalfood.com

<b>MANASSAS, VA</b> 703.369.9977 10320 Festival Lane, Manassas, VA 20109	<b>WOODBIDGE, VA</b> 703.897.6100 13813 Foulger Square, Woodbridge, VA 22192	<b>ALEXANDRIA, VA</b> 703.933.6033 1476 North Beauregard St, Alexandria, VA 22311
<b>SILVER SPRING, MD</b> 301.847.9884 13814 Outlet Dr, Silver Spring, MD 20904	<b>OXON HILL, MD</b> 301.485.0651 5470 St Barnabas Rd, Oxon Hill, MD 20745	<b>BALTIMORE, MD</b> 410.645.8627 6600-6658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본세일은 WOODBRIDGE, SILVER SPRING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SEAFOOD**

- 블루피쉬 BLUE FISH **\$1.99** / LB
- 통연어 SALMON (10-12 SIZE) **\$6.99** / LB
- 냉동 오징어 FROZEN SQUID **\$2.99** / LB

**MEAT**

- 소사태 Beef Shank (Bone-in) **\$4.99** / LB
- 소갈비뼈 Beef Back Rib **\$2.99** / LB
- 돼지등심 Pork Loin **\$2.99** / LB
- 돼지목뼈 Pork Neck Bone **\$1.69** / LB
- 통닭 Whole Chicken **\$1.79** / LB
- 닭날개 Chicken Wing **\$2.59** / LB

**HARDWARE**

- FULL SIZE ALUMINUM TRAY **\$1.69** each
- FANCY HEAT **\$1.49** 200 G

**WOODBIDGE ONLY** .....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 추천 핫 세일 품목 HOT SALE**

농심 짜파게티 멀티팩 NONGSHIM CHAPAGETTI MULT <b>4.99</b> 127G*4	WANG 특당면 WANG SWEET POTATO STARCH NOODLE <b>2.99</b> 12 OZ	WANG 짜장국수 WANG JAJANG NOODLE <b>3.99</b> 3 LB	오투기 직접 볶은 간짜장 OTTOGI GANJAJANG SAUCE MIX <b>5.29</b> 212 G	아씨 쌀가루 ASSI RICE FLOUR <b>3.29</b> 30 OZ	곰표 튀김가루 GOMPYO FRYING MIX FLOUR <b>2.79</b> 1 KG	CJ 비비고 사골곰탕 BIBIGO BEEF STOCK SOUP <b>2.29</b> 500 G	CJ 비비고 참기름 BIBIGO SESAME OIL <b>4.29</b> 160 ML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인믹스 AMYANG FRENCH CAFE MIX <b>10.99</b> 10.9*100	백설 참치액 풍부한 맛 TUNA FISH SAUCE / RICH <b>9.99</b> 900 G
수라상 하봉정 매실원액 HABONGJEONG PLUM EXTRACT IN BOTTLE <b>12.99</b> 700 ML	샘표 양조간장 501 NATURALLY BREWED SOY SAUCE 501 <b>3.99</b> 500 ML	오투기 미향 OTTOGI COOKING WINE <b>2.99</b> 360 ML	팔도 비빔장 BIBIMJANG SAUCE TUBE <b>5.29</b> 380 G	샘표 양념쌈장 SEMPIO SEASONED SOYBEAN PASTE <b>1.79</b> 170 G	양반 어린미역 DONGWON DRIED SEAWEED <b>5.99</b> 140 G	오투기 자른다시마 OTTOGI SEA TANGLE <b>8.99</b> 150 G	샘표 고등어캔 SEMPIO MACKEREL BOILED <b>2.79</b> 14.10 OZ	동원 즉석 라볶이 DONGWON RAPOKKI <b>4.29</b> 372 G	수라상 쌀 전병 SURASANG SYRUP COATED RICE CRACKER <b>4.99</b> 10.58 OZ
해태 고향만두 HAITAI VEGETABLE DUMPLING <b>6.99</b> 20 OZ	수라상 사누끼 우동 SRS SANUKI UDON <b>3.99</b> 1 KG	자연나라 백진미 오징어채 SEASONED DRIED SQUID SLICES <b>8.99</b> 170 G	샘표 정통수타짜장 NOODLE W/BLACK BEAN SAUCE <b>4.99</b> 640 G	WANG 바지락탕 BOILED SHORT NECKED CLAM <b>3.49</b> 12 OZ	WANG 황태 코다리 WANG POLLACK (KODARI) <b>7.49</b> 1.5 LB	아씨 생미역 SALTED SEAWEED <b>2.79</b> 14.1 OZ	움트리 움쉐프의 찌개 조림장 SPICY SOUP PASTE <b>7.99</b> 450 G	CAFE DU MONDE 치커리 커피 CAFE DU MONDE COFFEE <b>5.99</b> 15 OZ	SUPER Q 건면 SUPER Q KAN MIAN STEAMED NOODLE <b>1.99</b> 500 G

**SILVER SPRING ONLY** .....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퀴드 피쉬소스 SQUID FISH SAUCE <b>1.99</b> 25OZ	카페 듀몽드 커피 CAFE DU MONDE COFFEE <b>4.99</b> 15OZ	오투드 바삭 튀김가루 부침가루 <b>2.99</b> 1KG	오투드 빵가루 <b>3.99</b> 500G	뚜기네 분식집 국물 떡볶이 쌀 떡볶이 라볶이 OTG TTEOK-BOKKI <b>4.49</b> 436G	아씨 북어채 ASSI SPILT DRIED POLLOCK <b>8.99</b> 8OZ	CJ 햇바삭김 재래김 도시락 CJ CRISPY&ROASTED SEA SALT SEAWEED <b>4.99</b> 12PK	오투기 옛날 미역 OTG DRIED SEAWEED (YETNAL MIYUK) <b>5.99</b> 100G	CJ 다시다 닭고기 CJ DASIDA SOUP STOCK CHICKEN FLV <b>7.99</b> 1KG	뽕튀기 PUFFED CEREAL SNACK <b>5.99</b> 10.5OZ	농심 순라면 패밀리팩 SOON VEGGIE NOODLE SOUP FAMILY <b>3.99</b> 4PK
--	---	----------------------------------	--------------------------	---	---	---	---	---	--	--